

| 연차보고서 2025-03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문현경 · 김아람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문현경·김아람

머 리 말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인지도와 제도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수준 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룰 예정인데, ①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②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③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참여 활동, ④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 준비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시 수급과 관련한 이들의 제도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팀 연차보고서로 수행되었고,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센터, 원활한 자료조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공단 지사와 조사업체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연구가 향후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개별 의견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한 정 립

목 차 | Contents

요 약	1
I. 서 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4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15
제1절 분석 자료	15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5
2.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20
제2절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23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23
III.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삶의 만족도	27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27
1. 수급자의 소득과 지출 및 가계수지	28
2.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및 필요 생활비	42
3. 수급자의 주거 생활 실태	48
4. 수급자의 재산 및 부채 보유 현황	51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58
1. 경제활동 참여 상태	58
2.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67

3.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및 이유	69
제3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참여 활동	71
1. 사회활동 참여 여부	71
2. 사회활동 비참여 사유	75
3.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76
제4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 준비	79
1. 노후 준비 경험 및 방법	79
2. 자녀 세대의 노인 부양 책임 주체	83
제5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의 만족	84
제6절 소결	91

IV.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및 인식 95

제1절 기초연금의 도움 정도 및 수급액 만족도	95
1.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95
2.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01
제2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103
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103
2. 적정 기초연금액 수준	107
제3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109
1.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109
2.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 습득 경로	116
3. 기초연금 제도 관련 상담 경험	119
4. 기초연금 제도 탈락 경험	122
제4절 소결	123

V.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기초연금 인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127
제1절 기초연금 신청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	128
제2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131
제3절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134
제4절 소결	137
VI. 결 론	139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부 록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147
부 록 2: 초점집단 면접조사 질문지	164

표차례

〈표 Ⅱ-1〉 가중치 산정 방법	16
〈표 Ⅱ-2〉 조사 대상 접촉과정 및 조사 승낙률	17
〈표 Ⅱ-3〉 조사 영역별 문항 구성	18
〈표 Ⅱ-4〉 FGI 집단 구성	21
〈표 Ⅱ-5〉 FGI 참여자 세부 정보	22
〈표 Ⅱ-6〉 FGI 질의 내용 및 흐름	23
〈표 Ⅱ-7〉 분석 대상의 연령, 건강 상태, 가구원 수의 평균	25
〈표 Ⅱ-8〉 분석 대상의 개인 특성별 분포	25
〈표 Ⅱ-9〉 분석 대상의 가구 특성별 분포	26
〈표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 소득	30
〈표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연령대에 따른 소득원별 월 소득	32
〈표 Ⅲ-3〉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지역·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원별 월 소득 ...	33
〈표 Ⅲ-4〉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소득원별 비중	35
〈표 Ⅲ-5〉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소득 합계	36
〈표 Ⅲ-6〉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항목별 월 지출	38
〈표 Ⅲ-7〉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월 소비지출: 식비·주거 및 광열수도비· 의류비·보건의료비·통신비	40
〈표 Ⅲ-8〉 기초연금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율	41
〈표 Ⅲ-9〉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난 1년(2024년) 동안 가계수지 적자 경험 여부	43
〈표 Ⅲ-10〉 가계수지 적자 경험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44
〈표 Ⅲ-11〉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소·적정 생활비	46
〈표 Ⅲ-12〉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사용처	47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 유형	49
〈표 Ⅲ-14〉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 입주 형태	50
〈표 Ⅲ-15〉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의 면적	51

〈표 Ⅲ-16〉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보유 현황	52
〈표 Ⅲ-17〉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유형	53
〈표 Ⅲ-18〉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가액 분포	54
〈표 Ⅲ-19〉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물재산액	55
〈표 Ⅲ-20〉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금융재산액	56
〈표 Ⅲ-21〉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부채액	57
〈표 Ⅲ-22〉 조사 시점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	59
〈표 Ⅲ-23〉 일을 그만둔 이유	60
〈표 Ⅲ-24〉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종류	62
〈표 Ⅲ-25〉 현재 일자리의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63
〈표 Ⅲ-26〉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65
〈표 Ⅲ-27〉 현재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 소득	67
〈표 Ⅲ-28〉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68
〈표 Ⅲ-29〉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 사유	69
〈표 Ⅲ-30〉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70
〈표 Ⅲ-31〉 사회활동 참여 비율	72
〈표 Ⅲ-32〉 사회활동 참여 빈도	73
〈표 Ⅲ-33〉 기초연금 인상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향	74
〈표 Ⅲ-34〉 사회활동 참여하지 않는 이유	76
〈표 Ⅲ-35〉 사회활동 참여 희망 분야	77
〈표 Ⅲ-36〉 사회활동 참여 희망 빈도	78
〈표 Ⅲ-37〉 65세 도래 이전 노후 준비 상황	79
〈표 Ⅲ-38〉 65세 이전 주된 노후 준비 방법	81
〈표 Ⅲ-39〉 65세 이전에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주된 이유	82
〈표 Ⅲ-40〉 현재 경제활동 세대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	83
〈표 Ⅲ-41〉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삶 전반	85
〈표 Ⅲ-42〉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신의 건강 상태	86
〈표 Ⅲ-43〉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신의 경제 상태	87
〈표 Ⅲ-44〉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88
〈표 Ⅲ-45〉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89

〈표 Ⅲ-46〉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친구, 이웃과의 관계	90
〈표 Ⅲ-47〉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사회, 여가, 문화활동	91
〈표 Ⅳ-1〉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생활 도움 정도	96
〈표 Ⅳ-2〉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음	97
〈표 Ⅳ-3〉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음	98
〈표 Ⅳ-4〉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	99
〈표 Ⅳ-5〉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친목 모임의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가 시간이 많아짐	100
〈표 Ⅳ-6〉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짐	101
〈표 Ⅳ-7〉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02
〈표 Ⅳ-8〉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듭	104
〈표 Ⅳ-9〉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자녀,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	105
〈표 Ⅳ-10〉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듭	106
〈표 Ⅳ-1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후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듭 ...	107
〈표 Ⅳ-12〉 적정 기초연금액(1인당 기준연금액)에 대한 생각	108
〈표 Ⅳ-1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포함에 대한 인지 여부 ...	110
〈표 Ⅳ-14〉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인지 여부	111
〈표 Ⅳ-15〉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동에 대한 인지 여부 ...	112
〈표 Ⅳ-16〉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113
〈표 Ⅳ-17〉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화 및 가족관계 및 신변의 변화에 대한 자진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114
〈표 Ⅳ-18〉 기초연금 수급시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대한 인지 여부	115
〈표 Ⅳ-19〉 거동불편자에 대한 '찾아뵙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116

〈표 IV-20〉 기초연금 제도 관련 정보 습득 경로(1순위)	117
〈표 IV-21〉 기초연금 제도 관련 홍보 경로에 대한 선호	118
〈표 IV-22〉 기초연금 관련 상담 경험	119
〈표 IV-23〉 상담에 대한 만족도	120
〈표 IV-24〉 상담 방법 및 경로	121
〈표 IV-25〉 기초연금 탈락 경험	122
〈표 IV-26〉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횟수	123

그림차례

[그림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비중	31
[그림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39

요 약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입 이후 재정적·정책적 중요성이 꾸준히 확대된 노후소득보장 장치임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비례하여 재정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임
 -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본적 생계 보전 기능과 더불어, 생활안정 및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급대상 선정 기준은 제도인식, 급여수준, 지급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과 제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급여 수준 및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기초연금 산정 및 지급방식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제1절 분석 자료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조사 대상은 2025년 3월 기준 기초연금을 실제로 수급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고, 모집단은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포함함.
조사 최종 응답 인원은 총 2,000명임
- 조사기간은 2025년 7월 말~9월 중순(약 2개월 간)
- 조사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 조사 내용은 일반 현황, 삶의 만족,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 경제활동 참여 상태, 사회 참여 활동, 노후 준비, 기초연금 제도 이해 및 인식 등

□ 초점 집단 면접 조사: FGI

-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제도 인식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기초연금에 대한 인지도 및 국기초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65세~74세 노인 중 대상자 10명을 선발하여 성별에 따라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2025년 10월 중 FGI 실시
- 조사 내용은 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고자 함

Ⅲ.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삶의 만족도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계 경제 상황

- 수급자의 개인화한 월 소득은 126.6만원, 이 중 기초연금은 33.0만원으로 경상소득 중 26.0% 비중을 차지
- 수급자의 월 소비지출은 92.1만원, 이 중 식비가 가장 높은 비중인 51.9%를 차지
 - 그 외에도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
- 수급자의 월 흑자액 평균은 37.5만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 가구의 평균 기초연금액(33.0만원)과 유사한 정도의 저축 여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수급자의 저축 여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 실태

- 지난 1년 간(2024년 중) 수급자의 24.0%가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
- 수급자가 생각하는 노인 개인 기준 월 최소 생활비는 108.9만원, 월 적정 생활비는 151.7만원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규모의 71.8% 수준을 최소 생활비로 인식
- 기초연금 사용처로는 식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거 관련 비용과 보건의료비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 생활 실태

- 수급자의 주거 유형으로는 수급자의 47.9%가 아파트에 거주, 29.3%는 단독주택, 22.3%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

4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 수급자의 주거 점유 형태로는 수급자의 63.6%가 자가에 거주, 13.3%는 전세, 16.4%는 월세에 거주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 및 부채 보유 현황
 - 수급자의 22.1%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량 보유자 중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중형차가 54.8%, 1,600cc 미만 소형·경형차가 28.0%로 나타남
 - 수급자의 실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 차지했고, 실물재산 총액은 1억 4,690만원 수준이었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대부분 현금·예적금·보험 등 저축액으로 금융재산 총액은 2,734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급자의 부채는 대부분 담보대출이었고, 부채 총액은 평균 620만원 수준을 보였음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는 42.8%,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는 50.7%로 나타남
 - 평생 일을 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6% 차지
-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의 주된 참여 일자리는 청소업무가 18.3%,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14.1%, 공공질서 유지는 12.7%임
- 현재 일하고 있는 수급자 중 노인 일자리 또는 공공근로와 같은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비율은 28.9%

제3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 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사교활동은 57.3%, 취미·여가활동은 31.6%, 종교활동은 25.6% 참여하고 있음
- 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 빈도는 월 1회 이하부터 주 2~3회까지 참여빈도가 참여 사회활동의 종류에 따라 분포가 다양했음

제4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준비

- 수급자의 60.0%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응답했고,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6.5% 비중
-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을 활용한 경우가 29.0%로 나타남

제5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의 만족

- 수급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성별로는 남성 수급자, 80세 이상 수급자, 농어촌 거주자, 노인 단독 수급자의 만족 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IV.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및 인식

제1절 기초연금의 도움 정도 및 수급액 만족도

-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도움정도가 5점 만점 기준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 4.31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6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정도가 5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3.83점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자 기준 '만족(4점)'의 비중이 63.2%로 가장 높았고, '보통(3점)'이 19.3%, '매우만족(5점)'이 12.7%로 '보통' 이상의 비중이 95.2%를 차지함
- 매우 만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통과 만족에 응답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만족도 평균이 3.83점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임

제2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문항에는 '그런 편이다(4점)'가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른 사람(자녀,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에는 '그런 편이다(4점)'가 55.0%,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에는 '그런 편이다(4점)'가 47.7%,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구나'에는 '그런 편이다(4점)'가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적정 기초연금액 수준) 전체 조사대상자 기준 현재 수준(34만 2천원)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19.9%였으나, 월 40만원은 4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월 50만원이 20.0%를 차지하였으며, 월 45만원은 12.4%로 가장 낮았음

제3절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 및 인식

-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제도 이해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8가지 문항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음
-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소득인정범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연계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변경내용, 기초

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이나 신변의 변화에 대한 신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 할인, 기초연금 탈락자가 수급을 위한 재신청, 거동불편자 대상의 찾아뵙는 서비스 등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담았음(결과는 보고서 본문 참조)

-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습득 경로) 정보습득 경로 1순위는 ‘주변인(가족, 친구 등)’이 27.6%,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이 25.5%를 차지하였고,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은 22.9%,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은 18.53% 순으로 응답비중을 차지함
- 정보 습득에 대한 선호경로 조사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이 34.2%로 가장 높았고,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이 30.9%를 차지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역시 22.2%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의 87.3%가 되었음
- (기초연금제도 관련 상담 경험) 기초연금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41.7%이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8.3%로, 상담 경험 유무의 비율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상담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대한 결과로는 만족도 정도가 5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4.17점으로 ‘보통’ 이상의 비중이 99.9%를 차지하여 상담을 받은 경우 대부분 만족하였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음
- 상담 방식 및 경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9.1%로 가장 많았음
- (기초연금제도 탈락 경험) 탈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2.0%이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8.0%로, 대부분 탈락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탈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에게 탈락 후 재신청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는 80.0%이고 2회는 14.8%로 재신청 횟수는 상대적으로 1회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단, 기초연금 탈락 경험이 있는 비중 자체가 2.0%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재신청 횟수에 대한 응답결과는 단편적으로 해석에 유의 필요

V.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기초연금 인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제1절 기초연금 신청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

- (기초연금의 신청 경로) FGI 참여자들은 언론에서 해당 지역의 통장, 주민 센터(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답변함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인지 여부) 기초연금 수급과 미수급 상황을 비교하여 전자가 이득이라서 동시 수급한다는 의견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신청 및 수령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옴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의견)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복지 혜택이 자신에게 온전히 와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음

제2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 (한 달에 드는 최소 비용에 대한 의견) 참여자 대부분은 100만 원은 상회해야 자신이 판단하기에 최소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인해 정기적인 노동소득을 얻지 못한다고 답변함

- (2024년 9월 정부의 발표안에 대한 인식) 모든 참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실소득을 늘려줄 방안이면 굳이 2024년 9월의 정부 발표안에 국한하기보다 국기초 생계급여 액수를 늘려주거나 노동 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기초 급여액 감소를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참여자들이 있었음

제3절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 (현행 기초연금보다 지급 범위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려주는 개편안에 대한 인식) FGI 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경제적 삶이 개선되는 관계로 이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몇몇은 기초연금 대신 국기초 혜택을 증가하는 것이나 혹은 기초연금액의 균등 지급과 같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기타 의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기초 수급자들의 상황에서 노동 소득이나 기초연금액이 바로 국기초 급여의 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참여자 또한 있었음

VI. 결론

- 기초연금 수급액 변화 또는 수급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집단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의견 파악 필요
 - 수급액 및 수급권 변동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 따라서 불확실한 소득 여건 속에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고령층이 느끼는 우려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가 제도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제도 설계와 정보 제공 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 향후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10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조정 방안에 대한 기대도 확인됨

□ 조사 신뢰도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한 향후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

-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초연금 수급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단일 조사만으로는 다양한 수급자의 특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보다 폭넓은 조사 설계가 필요
- 수급자 수 증대에 맞추어 조사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하여 결과 해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 규모 확장 및 표본 설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기초연금 제도는 초기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기반으로 출발한 이후,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을 여러 차례 확장해 오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아직 완전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처음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에게 국민연금 A값의 5%(2008년 기준 약 9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2014년에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급여 대상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현재의 기초연금 체계가 구축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진행하여 마무리하였고, 2025년 기준 단독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급여는 342,510원에 이른다. 후속 분석에서도 확인되듯이 기초연금은 현세대 수급 노인의 소득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수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6월 현재 노인 인구는 1,054만 명에 근접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94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과 노인 빈곤을 완화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수급 규모와 재정 투입 수준을 감안할 때 거대 제도로 성장한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장래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권자가 더 늘어나면 재정 소요 또한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급여가 실제 수급자의 생활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 집단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 시기에는 질병 발생 위험 증가, 근로능력 저하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보건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사회활동 참여 감소, 1인 노인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는 우울감, 고립, 외로움, 자살 및 고독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이라는 기능을 넘어, 노후기 다양한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여건, 욕구, 정책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 기반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조사는 현재로서는 본 실태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자료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은 포괄적 조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인식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반복 수행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여건·인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이번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역시 이러한 목적을 이어받아 수급자의 기본적 특성, 가계 및 경제적 상황, 정책 수요와 만족도,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노후준비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에서는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이후 국기초)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시 수급과 관련한 이들의 제도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한 것은 2024년 9월에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안에 기인한다. 당시 정부는 오랫동안 정책적 논란이 있어 온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¹⁾ 구체적으로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국기초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초연금과 국기초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제도를 둘러싼 이들의 인식과 문제의식,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질문했다. 따라서 이번 FGI는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문현경 외, 2023)에서 실시된 FGI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당시 연구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면서 미신청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두 제도의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는 공통점이 있다. 독자들은 2023년 연구와 본 연구의 FGI를 종합적으로 조망한다면, 국기초 수급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다소나마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수급자 실태조사는 상술한 문제에 주목하여 기초연금 및 감액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을 동시 수급하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성별로 구분한 두 집단에게 FGI를 실시했다. 대상자의 인터뷰 용이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은 서울로 제한하였고, 응답의 명확화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연령은 65세에서 75세 사이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FGI를 통해 기초연금 및 국가기초생활보장의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고자 했다. 수급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기초연금 산정 및 지급방식을 개편하는데

1) 그러나 실제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표현대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후에 환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관련된 정책문제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이다.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구성과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을 소개하겠다. 우선 2장에서의 분석 자료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를 활용했으며, 각 조사의 개요 및 조사 대상, 조사 설계, 조사 진행 경과, 조사 문항 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의 분석 대상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개별 특성과 가구 특성별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했다.

3장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계수지(소득·지출), 자산·부채, 기초연금 활용 실태, 주거환경, 경제활동 여부, 사회활동 참여, 노후준비 정도 등 다양한 영역을 검토했으며, 각 영역별 만족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을 분석하여, 제도 만족도, 제도 이해 수준,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초점집단 면접조사(FGI)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수급자들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초연금 및 국가기초생활보장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감액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전체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제1절 분석 자료²⁾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전반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례 조사로,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상, 제도 인식·만족도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2023년 이후 방역 여건이 완화되면서 다시 기존의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복귀하였다.

조사 모집단은 2025년 3월 말 기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이며,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수급자 2,0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설계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16개 시·도)을 기준으로 층을 나누고, 각 층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총 2,000명을 배정하였다. 세부적인 표본 구성 원칙은 이전에 수행한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20~2021)’, 및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2015~2019)’와 동일하다. 조사구의 표본 크기를 기준으로 총 51개의 조사구를 시·도별로 할당하고, 읍·면·동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지역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를 전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먼저 표본 추출 확률과 모집단 분포를 이용하여 기본 가중치를 산출한

2) 본 절의 내용은 문현경·김아람·홍성운(2024)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뒤, 모집단에서 확보 가능한 보조 정보(성별, 연령별)를 활용해 모집단 구조와 최대한 일치하도록 아래의 <표 II-1>과 같이 보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래킹비 조정(Raking Ratio Adjustment) 기법³⁾을 사용하여 시·도, 성별, 연령별 주변 분포가 실제 모집단 분포와 일치하도록 가중치를 반복 조정하였다. 이어서 가중치 분포의 극단값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평균 가중치의 1/3 이하 또는 3배 이상인 경우를 이상치로 간주하여 절삭한 후, 절삭 전·후 평균값의 비율을 반영해 다시 조정함으로써 지역별 가중치 합이 동일해지도록 정제하였다.

<표 II-1> 가중치 산정 방법

$$\text{기본가중치} = \frac{1}{\text{조사구 추출 확률}} \times \frac{1}{\text{조사구내 표본추출 확률}}$$

설문 조사는 2025년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다.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 컨택팀에서 조사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에 대한 안내 및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참여 의사를 파악했다. 조사대상자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공한 조사자 명부(가명 처리)에서 동일 특성별 명부에서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조사 불가 또는 거절 시 해당 동일특성 그룹 내에서 대체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 참여에 응하겠다고 회신한 수급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원이 현장 방문 면접 조사를 일대일로 수행하고, 실사 책임자는 설문조사 기간 중 2~3일 간격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회수하여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원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더불어,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설문지의 20%를 무작위 추출한 뒤 응답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조사 진행 여부 및 직접 응답 등 검증 작업을 실시했다.

3) 래킹비 조정방법(raking ratio adjustment)은 층화 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예: 성별, 연령별), 이 변수들의 각 조합에 대해 모두 층(cell)을 만들지 않고 주변 층(marginal cell)의 정보만 일치시키도록 하는 가중치 조정 기법이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조사원이 조사한 질문지를 무효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를 위해 접촉한 수급자는 총 8,986명으로, 접촉한 조사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수급자는 2,720명(30.3%)이었고, 조사를 완료한 수급자는 2,000명(22.3%)으로 조사 참여 승낙 수(2,720명) 대비 조사 성공 수(2,000명)는 73.5%로 나타났다.

〈표 II-2〉 조사 대상 접촉과정 및 조사 승낙률

(단위: 건)

	유선 단계			조사 참여 승낙	면접 단계	
	시도	거절	무응답		거절	조사 성공
건	8,986	2,977	3,289	2,720	720	2,000

조사 내용은 직전 조사인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항 순서와 번호를 재배치하고, 질문이나 선택지의 중의적인 표현을 조정했다. 조사 영역은 수급자의 일반 현황, 삶의 만족,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 가계 경제 상황(소득·지출 상황 및 기초연금 사용처), 경제활동 참여 상태, 사회참여 활동,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 준비, 기초연금 제도 이해 및 인식으로 구성했으며, 불필요한 설문 항목은 일부 삭제하였다. 각 조사 영역별 세부 문항 내용은 아래 〈표 II-3〉과 부록1의 (설문)조사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 II-3〉 조사 영역별 문항 구성

설문 문항		
A. 수급자의 가구원 현황 및 일반 현황	A1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원 수
	A2-1	가구원 성별
	A2-2	가구원 생년
	A2-3	가구원 생월
	A2-4	수급자와의 관계
	A2-5	가구원 혼인상태
	A2-6	가구원 학력
	A2-7	가구원 학력(이수 여부)
	A2-8	가구원 경제활동 상태
	A2-9	가구원 기초연금 수령여부
	A2-10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A3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 형태
	A4	거주 주택 종류
	A4-1	거주 주택의 주거용 전용면적
	A4-2	거주 주택의 입주형태
	A4-3	월세 금액
	A5	차량 보유 현황
	A5-1	보유 차량 유형
	A5-2	보유 차량 중고가액
B. 삶의 만족	B1	기초연금 수급자의 항목별 만족도 (건강, 경제, 관계, 여가·사회활동, 삶 전반)
	B2	기초연금 수급자의 걱정거리
C.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	C1	기초연금의 전반적 도움 정도
	C2	기초연금 수급 후 드는 주관적 생각
	C3	기초연금의 항목별 도움 정도
	C4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
	C5	적정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생각
D. 소득	D1 -D10	소득 항목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E. 지출	E1 -E14	지출 항목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보건 의료비, 간병수발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육비, 사적이전지출, 기타 소비, 비소비 지출, 경조사비 등 비경상 지출)

설문 문항		
F. 자산 ·부채	F1 -F8	자산·부채 항목 (거주주택 가격, 거주주택 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기타 실물 자산, 현금·예적금·보험 등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거주 주택 이외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외상·할부, 임대보증금, 기타)
G. 가구 경제상황	G1	지출이 소득보다 많았던 달, 부족 생활비 충당 방법
	G1-1	부족한 생활비 마련 방법
	G2	현재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
	G3	(개인 기준,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 적정 생활비
	G4	기초연금 사용처(1-3순위)
H. 경제활동	H1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
	H1-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
	H1-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사상 지위
	H1-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H1-4	주당 평균 근무일 수(주당), 근무 시간(주당)
	H1-5	현재 일의 월 평균 수입
	H2	현재의 일에 대한 만족도
	H2-1	현재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H3	앞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
	H4	일을 그만 둔 이유
	H5	일을 하고 싶은 의사와 하고 싶은 일의 구체적 내용
	H5-1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은 희망 여부
	H5-2	하고 싶은 일의 내용
	H5-3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H5-4	하고 싶은 일자리의 희망 근로 시간(주당)
	H5-5	하고 싶은 일자리의 희망 근로 월 소득
I. 사회 참여 활동	I1	참여하는 사회활동과 빈도
	I2	기초연금 인상이 사회활동 참여를 늘게 했는지 여부
	I3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I4	희망하는 사회활동 참여와 희망 빈도
J. 노후 준비	J1	65세 이전의 노후 준비와 주된 준비 방법
	J1-1	가장 주된 노후 준비 방법
	J2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
	J3	현재 경제활동 세대의 노후 준비 방법

설문 문항		
K. 기초연금 제도 이해 및 인식	K1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평소 생각(항목별)
	K2	기초연금 제도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로
	K3	기초연금 제도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경로
	K4	기초연금 상담 경험
	K4-1	상담에 대한 만족도
	K4-2	상담 방법
	K4-3	기관 방문 순서
	K4-4	직접 방문 횟수
	K4-5	2회 이상 방문했던 사유
	K5	기초연금 신청 경험
	K5-1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 같았던 이유
	K6	기초연금 탈락 경험
	K6-1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횟수
	K6-2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하게 된 계기

2.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둘 다 활용하면서 수행됐는데, 우선 양적 자료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계 상태 및 경제·사회 활동 참여 양상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양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급자 관점에서의 제도 경험이나 인식, 선호 등은 FGI와 같은 질적 방법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초연금 및 국기초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제도 인식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기초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의 목적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기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면서 국기초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위 ‘줬다 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 수급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기초연금의 제도 및 구조적 개선사항을 모색하고자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실시했다.

면접조사 대상은 국기초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65세 ~

74세 노인 중 대상자 10명을 선발하여 성별에 따라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2025년 10월 중 FGI 실시하였다. 최신의 제도 경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은 FGI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명 처리한 기초연금 수급자 DB에서 동시 수급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대상들을 유선으로 접촉하여 FGI의 전반적인 주제를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으며, 참여를 수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31일에 2회에 걸쳐 FGI를 실시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성별로 구분하여 전자 1차례, 후자 1차례의 FGI를 실시했다. FGI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등으로 접근 편의성을 확보하기 쉬운 서울특별시를 한정으로 FGI 참석 후보자와 접촉하고 장소를 확정하였고, FGI 대상자는 성별에 따라 각각 5명을 2개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10명이 참석하였다.

〈표 II-4〉 FGI 집단 구성

집단	A	B
조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일시	10월 31일	
성별	남성	여성
참여자수	5명	
연령	65~74세	

최종적으로 선정된 FGI 참여 노인의 성별, 연령, 지역, 가구 구분, 국기초 유형 등 세부 특성을 아래 〈표 II-5〉에 종합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산정에 영향을 받아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받아 기초연금의 만액인 단독 기준 342,510원, 부부 기준 274,000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액과 국기초 수급여부에 대한 확인은 기초연금 및 국기초 동시수급자 DB를 통해 확인하였고, 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동시수급자 상태여부와 국기초 유형은 참여자에게 FGI 시행 전에 확인하였다.

〈표 II-5〉 FGI 참여자 세부 정보

그룹	성명	성별	연령	지역	가구구분	국기초 유형
1	A1	남	68	강북구 수유1동	단독	생계, 의료, 주거
	A2	남	68	강북구 번동	단독	주거
	A3	남	69	동대문구 청량리동	단독	주거
	A4	남	68	마포구 공덕동	단독	생계, 의료
	A5	남	68	마포구 공덕동	단독	의료, 주거
2	B1	여	67	노원구 상계3,4동	단독	생계
	B2	여	66	서대문구 북가좌2동	단독	생계, 의료, 주거
	B3	여	71	동대문구 답십리2동	부부	생계, 의료, 주거
	B4	여	73	광진구 중곡4동	단독	생계
	B5	여	73	노원구 월계1동	단독	생계, 의료

주 1: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전액 수급)은 342,510원임

본 FGI는 전문 FGI 사회자(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별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은 FGI 전 과정에 철저하게 관찰자로만 배석했다. 다만, FGI를 진행 중 혹 누락되는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내용을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FGI의 모든 내용은 녹음되어 녹취록 형태로 필사한 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FGI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표 II-6〉 참고). 본격적인 FGI를 실시하기에 앞서, 참여자의 기본 정보와 자기소개를 통하여 참여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국기초 및 기초연금 관련 기본적인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GI는 국기초·기초연금 동시수급과 관련하여 총론과 각론, 향후 개선사항의 세 영역으로 질문을 세분하여 진행했다. 총론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안내 경로 파악,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 동시수급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질문했다. 다음으로 각론에서는 최소 필요한 월 비용과 기초연금의 기여도, 정부의 ‘줬다 뺀 기초연금’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기초연금액 일정 비율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 등을 구하고자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개선사항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FGI를 종료했다.

〈표 II-6〉 FGI 질의 내용 및 흐름

FGI 주제	세부 조사 항목
기초연금 관련 기본 사항	
기본 사항	기본 정보(가구구성, 성명, 연령, 거주지역 등) 국기초·기초연금액 수급 여부 국기초 수급 급여 유형 및 급여 수급 시점 국기초·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기초연금 감액 관련	
총론	기초연금 신청 안내 경로 파악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 국기초·기초연금 동시수급 결정 과정 등
각론	최소 필요한 월 비용과 기초연금이 기여하는 비율 정부의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 기초연금액 일정 비율 추가 지급에 대한 의견 기초연금 추가 지급 시, 근로시간 변화 여부
향후 개선사항	기초연금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제언

주: FGI 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의 “기초연금 수급자 초점집단 면접지” 참고

제2절 분석 대상의 일반 특성

본 절에서는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응답자의 가구원 및 일반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앞서, 응답자 개인 및 가구의 기본적 특성과 응답자의 가구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응답자의 연령, 주관적 건강 수준, 가구원 규모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은 여성 59.5%, 남성 40.5%로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74.11세(표준오차 0.151)였으며, 연령대를 세분하면 65~69세 29.4%, 70~79세 42.0%, 80세 이상

28.6%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고졸 36.0%, 초졸 이하 32.0%, 중졸 29.6%, (초)대졸 이상 2.4% 순으로, 고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사별이 52.1%로 가장 많았고, 유배우 37.9%, 이혼 9.6%, 미혼 0.3%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 여부는 취업자 42.4%, 비취업자 57.6%로 비취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 상태는 5점 척도로 범주화해 살펴보면 보통 이상 30.3%, 보통 38.1%, 보통 이하 31.6%로 나타났다. 이를 점수화한 평균은 2.93점(표준오차 0.020)으로, 전체적으로 '보통(3점)'에 근접하지만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가구 특성을 보면, 거주지역은 대도시 52.6%, 중소도시 35.1%, 농어촌 12.3%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41.5%, 경상권 30.2%, 전라권 12.9%, 충청권 11.6%, 강원권 3.9%였다. 응답자의 연령·건강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도시 및 수도권·경상권처럼 의료 및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노인 단독은 기초연금 수급 노인 1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고, 노인 부부는 노인 1인 또는 노인 2인으로 구성된 부부 가구를 의미하며,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와 그 외 가구원과 함께 사는 경우를 추가로 고려해 구분했다.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은 56.7%, 노인 부부 가구는 29.7%로 나타났고, 노인 단독가구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5.3%, 노인 부부가구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8.1%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의 가구의 가구원 수는 평균 1.57명(표준오차 0.018)으로 나타났고, 가구원 수 분포는 1명인 경우 56.7%, 2명인 경우 33.3%, 3명인 경우 8.0%, 4명 이상인 경우는 2.0%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47.9%, 단독주택 29.3%, 연립·다세대 22.3%, 기타 0.5%였으며, 입주 형태는 자가 63.6%, 전세 13.3%, 보증금 있는 월세 16.4%, 무보증 월세 0.4%, 기타 6.3%로 확인되었다.

〈표 II-7〉 분석 대상의 연령, 건강 상태, 가구원 수의 평균

(단위: 세, 점, 명)

	평균	표준오차
연령	74.11	0.151
건강 상태(5점 척도)	2.93	0.020
가구원 수	1.57	0.01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8〉 분석 대상의 개인 특성별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성별	남성	40.5
	여성	59.5
연령 ¹⁾	65~69세	29.4
	70~79세	42.0
	80세 이상	28.6
혼인상태	유배우	37.9
	이혼	9.6
	사별	52.1
	미혼	0.3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42.4
	비취업자	57.6
건강 상태	보통 이상	30.3
	보통	38.1
	보통 이하	31.6
전체		100.0

주: 연령은 2025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만 연령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9〉 분석 대상의 가구 특성별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거주지역	대도시	52.6
	중소도시	35.1
	농어촌	12.3
거주권역	수도권	41.5
	충청권	11.6
	전라권	12.9
	경상권	30.2
	강원권	3.9
가구 형태	노인 단독	56.7
	노인 부부	29.7
	노인 단독+(손)자녀	5.3
	노인 부부+(손)자녀	8.1
	기타	0.2
가구원 수	1명	56.7
	2명	33.3
	3명	8.0
	4명 이상	2.0
거주 주택 형태	단독주택	29.3
	아파트	47.9
	연립 및 다세대	22.3
	기타	0.5
거주 주택 입주 유형	자가	63.6
	전세	13.3
	보증금 있는 월세	16.4
	무보증 월세	0.4
	기타	6.3
전체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Ⅲ.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삶의 만족도

본 장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처해 있는 생활 여건과 삶의 만족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제1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 재산 및 부채 현황, 그리고 주거 실태를 파악하며, 제2절에서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 제3절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제4절에서는 노후 준비 수준, 제5절에서는 삶의 만족도 응답을 각각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은 주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요 특성별로 교차표를 작성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⁴⁾ 이러한 교차표를 바탕으로 특성 간 차이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수급자 개인 특성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을 사용하였고, 가구 특성 변수로는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가구 형태(노인 단독, 노인 부부, (손)자녀 동거 및 기타)를 활용하였다. 해당 수급자 특성의 분포는 제2장 후반부에서 이미 제시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면 되겠다.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실태

제1절은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설문으로, 수급자의 월 소득 및 월 지출 수준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고, 수급자의 특성에 보이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계수지를 분석하여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소비 성향과 저축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급자의 생활비 및 소비 실태는 가계수지의 적자 경험

4) 이때 제시된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므로, 항목별 합계가 100.0%에서 다소 벗어나는 라운딩 에러(rounding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여부와 이를 해소하는 방법, 최소·적정 생활비에 대한 의견, 기초연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다. 후반부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 상황 및 실태와 차량 및 자산·부채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일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수급자의 소득과 지출 및 가계수지

소득과 지출 문항과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상적이고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항목별 금액을 조사하였다. 단독 노인인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소득만을, 노인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가 얻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부가 각각 소득을 벌더라도 실제 소비·사용 단계에서는 공동으로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득과 지출의 분석 결과는 2025년 3월 기준 월 단위 소득·지출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월 기준 조사는 응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사 소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절 요인이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연중 발생하는 소득·지출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간 소득·지출을 조사하는 방식이 정확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면접조사로 연간 단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전 연도 전체를 회상해야 하는 등 응답 부담과 조사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모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고령층의 기억부담 및 비표본오차 가능성을 감안하면 연간 단위보다 월 단위로 질문하는 편이 응답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오차를 줄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은 협의를 통해 월 소득과 월 지출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확정하였다.

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 평균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가구 균등화를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수급자의 근로소득 평균은 38.2만 원으로 전체 경상소득의 30.2%, 사업·부업소득은 10.8만 원으로 8.5%, 사적이전소득은 13.4만 원으로 10.6%를 차지하였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평균은 58.9만 원으로, 전체 경상소득 중 가장 큰 비중(46.5%)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기초연금은 33.0만 원으로 전체 경상소득의 26.0%, 국민연금은 20.7만 원으로 16.3%의 비중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의 구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 응답자(해당 항목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약 40.3%이며, 이들의 월 근로소득 유효평균은 94.9만 원 수준이었다. 사업·부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약 9.8%이고, 이들의 유효평균 소득은 110.3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급자 중 약 5.2%가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효평균 수령액은 26.2만 원이었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0.3% 내외로 소수이지만, 유효평균은 42.8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약 2.7%이며, 이들의 유효평균 수령액은 37.6만 원 정도였다.

공적이전소득 항목 중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약 59.5%이며, 이들의 국민연금 유효평균은 3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역연금 수급 비율은 1.0% 수준이고, 이들의 유효평균은 36.6만 원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받는 비율은 10.4% 정도이며, 이들의 현금성 급여 유효평균은 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전체의 약 51.3%였으며, 이들의 사적이전소득 유효평균은 26.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전체의 약 50.2%에서 발생하고, 유효평균은 25.6만 원 수준이었으며, 친인척·지인으로

〈표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 소득

(단위: 만 원, %)

구분	평균	전체 경상소득 대비 비중	유효 값 ¹⁾	
			유효평균	유효비율
근로소득	38.2	30.2	94.9	40.3
사업·부업소득	10.8	8.5	110.3	9.8
재산소득	0.8	0.6	37.2	2.05
금융소득	2.0	1.6	16.3	12.5
개인연금	1.4	1.1	26.2	5.2
퇴직연금	0.1	0.1	42.8	0.3
주택연금·농지연금	1.0	0.8	37.6	2.7
공적이전소득	58.9	46.5	58.9	100
국민연금	20.7	16.3	34.7	59.5
기타 직역연금	0.4	0.3	36.6	1.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4	3.5	42.0	10.4
기초연금	33.0	26.0	33.0	100.0
기타 정부보조금	0.5	0.4	19.9	22.6
사적이전소득	13.4	10.6	26.1	51.3
자녀의 지원	12.9	10.2	25.6	50.2
친인척·지인의 지원	0.4	0.3	11.1	3.4
사회단체의 지원	0.2	0.1	6.4	2.9
경상소득 ²⁾	126.6	100.0	126.6	100.0

주 1: 유효 비율은 각 항목 값이 0을 초과하는 경우의 비율을 나타내고, 유효 평균은 각 항목 값이 0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값을 나타냄

주 2: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부업소득 +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 퇴직연금 + 주택·농지연금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주 3: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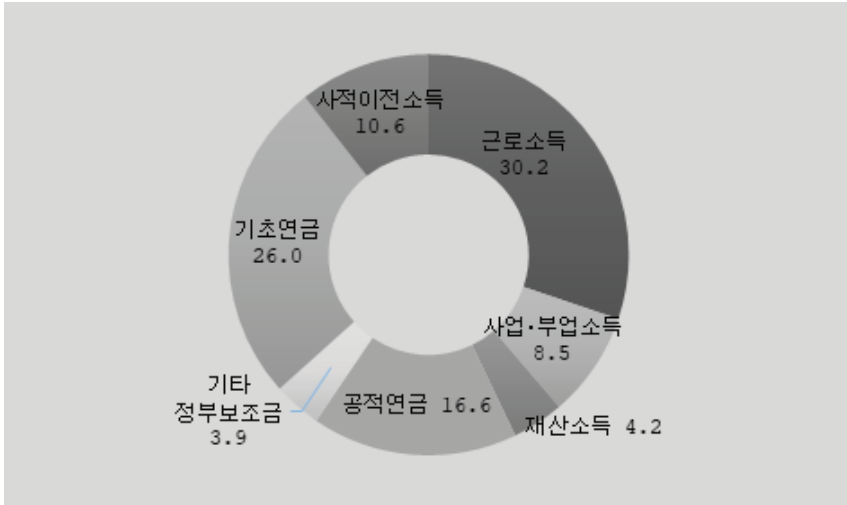
부터의 지원과 사회단체의 지원은 각각 매우 제한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각 소득 항목을 합산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포함하여 월 126만 6천 원 수준의 경상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6.0%로 나타난다. 즉, 기초

연금은 전체 경상소득의 약 4분의 1을 넘는 중요한 소득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비중

(단위: %)



주 1: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주 2: 그림의 '기타정부보조금' 분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했고, '재산소득' 분류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했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별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사적이전소득이 조금 더 큰 경향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남성(25.0만원)이 여성(17.7만원)보다 큰 반면, 기초연금액은 여성(34.0만원)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소득 구성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로소득과 사업·부업소득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기초연금액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없고,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수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표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연령대에 따른 소득원별 월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근로소득	48.6	31.1	75.9	34.5	5.0
사업·부업소득	14.0	8.6	19.9	11.0	1.2
재산소득	1.0	0.6	0.5	0.7	1.2
금융소득	2.1	2.0	1.3	1.8	3.1
개인연금	1.1	1.5	0.8	1.9	1.2
퇴직연금	0.1	0.1	0.2	0.0	0.2
주택연금·농지연금	1.1	0.9	0.1	0.7	2.4
공적이전소득	60.9	57.5	58.5	62.1	54.5
국민연금	25.0	17.7	24.7	22.6	13.7
기타 직역연금	0.3	0.4	0.4	0.3	0.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0	4.6	2.1	5.1	5.7
기초연금	31.4	34.0	30.9	33.5	34.2
기타 정부보조금	0.2	0.7	0.4	0.6	0.6
사적이전소득	11.1	15.0	6.8	11.4	23.1
자녀의 지원	10.6	14.4	6.6	10.8	22.3
친인척·지인의 지원	0.4	0.4	0.1	0.4	0.5
사회단체의 지원	0.2	0.2	0.1	0.2	0.3
경상소득	140.1	117.4	164.0	124.1	91.9

주: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고령층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로 자녀의 지원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표 Ⅲ-3〉의 소득원별 월 소득의 거주지역별 차이를 보면, 근로소득 수준은 대도시(46.0만원)가 가장 높고, 농어촌(23.9만원)이 가장 낮은 편

이며, 사업·부업소득은 농어촌(13.0만원)에서 대도시(10.9만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공적이전소득 가운데 국민연금은 농어촌(65.4만원)에서 가장 높고, 대도시(55.4만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적이전소득은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지만, 대도시(14.7만원)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117.4만원)의 경상소득이 노인 부부가구

〈표 Ⅲ-3〉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지역·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원별 월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거주지역			가구 형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노인단독	노인부부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근로소득	46.0	31.5	23.9	32.6	48.7	38.7
사업·부업소득	10.9	9.8	13.0	6.3	17.7	14.2
재산소득	0.3	0.9	2.1	0.5	1.0	1.2
금융소득	1.5	2.7	2.2	2.3	1.6	2.0
개인연금	1.5	1.2	1.4	1.2	1.1	2.4
퇴직연금	0.1	0.1	0.3	0.1	0.2	0.2
주택연금·농지연금	0.3	1.2	3.4	1.1	1.0	0.4
공적이전소득	55.4	61.9	65.4	57.5	62.5	56.9
국민연금	18.2	24.7	20.0	16.7	26.4	24.4
기타 직역연금	0.4	0.1	1.1	0.5	0.3	0.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0	3.5	8.4	6.5	1.6	1.6
기초연금	32.6	33.1	34.2	33.3	33.5	30.5
기타 정부보조금	0.3	0.4	1.7	0.6	0.6	0.3
사적이전소득	14.7	11.9	12.0	15.8	8.8	13.9
자녀의 지원	14.4	11.7	9.3	15.2	8.3	13.1
친인척·지인의 지원	0.2	0.1	1.9	0.4	0.4	0.5
사회단체의 지원	0.1	0.1	0.8	0.2	0.1	0.2
경상소득	130.9	121.2	123.6	117.4	142.6	130.1

주: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142.6만원)보다 낮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소득 항목에서 노인 부부가구가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 다만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노인 단독가구(15.8만원)가 노인 부부가구(8.8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는 주로 자녀 지원이 노인 단독가구에 집중되는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상소득 합계를 비교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117.4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142.6만 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는 130.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상소득은 노인 단독가구에 비해 약 1.21배($=142.6/117.4$) 높은 수준이며, 손자녀·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의 경우에도 노인 단독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공적이전소득의 구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을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타 직역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표 III-4>에 따르면, 전체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 국민연금은 35.1%로, 두 항목이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 비중이 더 크고(여성 59.1%, 남성 51.6%), 남성은 국민연금 비중(41.1%)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비중(80세 이상 62.7%)은 커지고, 국민연금 비중(80세 이상 25.1%)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수급자의 기초연금 비중(58.8%)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소도시 수급자는 국민연금 비중(39.9%)이 더 큰 편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공적이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57.8%)이 노인 부부가구(53.7%)보다 높아,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4〉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소득원별 비중

(단위: %)

구분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	직역연금	국기초	기초연금	기타정부 보조금
전체		100.0	35.1	0.6	7.4	56.0	0.9
성별	남성	100.0	41.1	0.4	6.6	51.6	0.4
	여성	100.0	30.8	0.8	8.1	59.1	1.3
연령대	65~69세	100.0	42.2	0.7	3.7	52.8	0.6
	70~79세	100.0	36.3	0.5	8.2	54.0	1.0
	80세 이상	100.0	25.1	0.7	10.4	62.7	1.0
거주지역	대도시	100.0	32.8	0.7	7.2	58.8	0.6
	중소도시	100.0	39.9	0.1	5.7	53.6	0.7
	농어촌	100.0	30.5	1.7	12.9	52.3	2.6
가구 형태	노인단독	100.0	29.1	0.8	11.3	57.8	1.0
	노인부부	100.0	42.3	0.5	2.6	53.7	0.9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00.0	42.9	0.2	2.9	53.5	0.5

주: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수급자 특성에 따른 소득 합계를 살펴 보기에 앞서 그 개념을 정리하면,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재산·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값으로, 공적연금이나 정부의 현금 지원 등 공공부문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값이 경상소득이다.

전체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월 59.9만원을 수준을 보이며, 공적이전소득은 54.8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상소득은 114.7만원으로 나타나며, 이 중 기초연금은 31.9만원 수준을 보였다.

〈표 III-5〉를 보면, 전체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월 67.7만 원, 공적이전 소득은 58.9만 원, 전체 경상소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26.6만 원 이며, 이 중 기초연금은 33.0만 원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시장

〈표 III -5〉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소득 합계⁵⁾

(단위: 만 원)

구분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기초연금	
전체		67.7	58.9	33.0	126.6
성별	남성	79.3	60.9	31.4	140.1
	여성	59.8	57.5	34.0	117.4
연령대	65~69세	105.5	58.5	30.9	164.0
	70~79세	62.0	62.1	33.5	124.1
	80세 이상	37.3	54.5	34.2	91.9
거주지역	대도시	75.5	55.4	32.6	130.9
	중소도시	59.3	61.9	33.1	121.2
	농어촌	58.3	65.4	34.2	123.6
가구 형태	노인단독	59.9	57.5	33.3	117.4
	노인부부	80.1	62.5	33.5	142.6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3.1	56.9	30.5	130.1

주 1: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금융소득(개인연금)+사적이전소득

주 2: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직역연금)+국기초급여+기초연금+기타정부보조금

주 3: 경상소득 =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

주 4: 노인 부부의 소득은 가구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화한 소득을 적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모두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는 65~69세 집단의 시장소득이 가장 높고(105.5만 원), 80세 이상 집단은 37.3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시장소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대도시의 시장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 부부가구(80.1만원)와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73.1만원)의

5)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로 집계하는 개념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가구원 전체가 아닌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및 부부의 합산 소득을 집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이 노인 단독가구(59.9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는데, 이는 조사에서 가구 내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생활비)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 즉 생활비 지출 수준과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각 지출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생활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의·식·주 관련 비용으로 식비(식료품비, 외식비, 담배·주류 구입비), 의류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를 구분하고, 고령 특성상 비중이 커질 수 있는 보건의료비, 간병·수발비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육비, 기타 소비지출 등을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각 지출항목에 대해,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뿐 아니라 (손)자녀나 비노인 가구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손자녀의 학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직접적으로는 노인의 소비가 아닐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반영하므로 노인 지출로 간주하였다. 또한, 가구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광열수도비와 같이 개인별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항목도 있어, 지출의 ‘목적’이 아닌 실제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표 III-6〉에 따르면, 월평균 식비는 47.8만 원, 주거 및 광열수도비는 12.9만 원, 보건의료비는 8.1만 원, 교통비는 6.2만 원, 통신비는 4.9만 원 수준이다. 유효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의류비의 경우 약 68.5%의 수급자가 월평균 5.3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생활비는 약 45.6%가 월 6.7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출항목을 합산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소비지출(생활비) 합계는 평균 92.1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6〉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항목별 월 지출

(단위: 만 원, %)

구분	평균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	유효 값 ¹⁾	
			평균	비율
식비	47.8	51.9	47.8	100.0
식료품비	32.8	35.6	37.3	100.0
외식비	8.7	9.5	9.9	76.8
담배·주류 구입비	6.3	6.8	7.1	40.7
주거 및 광열수도비	12.9	14.0	13.2	98.3
의료비	3.6	3.9	5.3	68.5
교통비	6.2	6.7	7.0	88.5
통신비	4.9	5.3	5.0	97.3
문화생활비	3.1	3.4	6.7	45.6
보건의료비	8.1	8.8	8.4	96.0
간병수발비	0.5	0.5	24.4	2.1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1.5	1.6	5.0	30.8
교육비	0.5	0.5	18.1	2.8
기타 소비	3.0	3.3	12.6	23.6
소비지출 합계	92.1	100.0	9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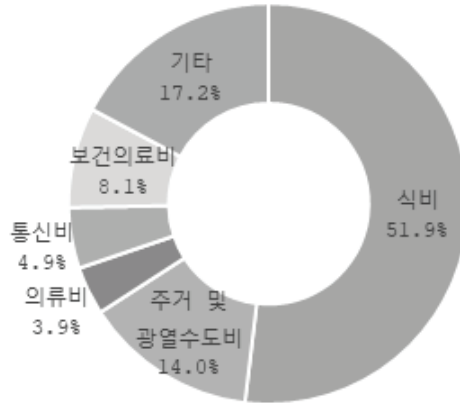
주: 유효 비율은 각 항목 값이 0을 초과하는 경우의 비율을 나타내고, 유효 평균은 각 항목 값이 0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값을 나타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소비지출 합계에 대한 항목별 비중을 보면, 식비(식료품·외식·담배·주류 포함)가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약 52% 수준)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비중이 크다([그림 Ⅲ-2] 참조). 이는 고령층의 기본 생계비와 의료 관련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그림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단위: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이러한 지출 수준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성별로는 대체로 여성의 지출이 남성보다 적은 경향이 있으며, 전체 소비지출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표 Ⅲ-7〉).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65~69세 집단의 소비지출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에서 가장 낮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 수급자의 소비지출액이 98.1만 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수급자의 소비지출은 90만~92만 원대 수준이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비지출이 69.7만 원으로 가장 낮고, 노인 부부가구가 115.2만 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가 135.3만 원으로, 가구원 수와 구조에 따라 소비지출 수준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7〉 기초연금 수급자의 특성에 따른 월 소비지출: 식비·주거 및 광열수도비·의류비·보건의료비·통신비

(단위: 만 원)

구분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의류비	보건 의료비	통신비	소비지출
전체		47.8	12.9	3.6	8.1	4.9	92.1
성별	남성	55.8	13.5	3.7	8.3	5.7	104.3
	여성	42.4	12.6	3.6	7.9	4.4	83.9
연령대	65~69세	57.0	14.0	4.5	7.2	6.0	108.6
	70~79세	48.5	13.2	3.6	7.9	5.0	92.9
	80세 이상	37.3	11.5	2.6	9.1	3.7	74.1
거주지역	대도시	48.5	13.9	3.4	7.2	5.1	90.6
	중소도시	47.0	12.5	3.4	8.2	4.8	92.4
	농어촌	47.0	10.4	5.0	11.1	4.8	98.1
가구 형태	노인단독	35.5	12.0	2.7	7.0	3.3	69.7
	노인부부	61.3	13.7	4.3	9.5	6.2	115.2
	(손)자녀 동거 및 기타	69.7	15.3	5.8	9.4	8.6	135.3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계수지 분석

〈표 Ⅲ-8〉에 따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은 12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약 37.5만 원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잔여 재원은 실질적으로 수급자의 저축 여력 또는 비정기 지출에 활용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은 약 70% 내외로 나타나며, 잔여분은 저축이나 기타 비정기 지출로 사용되는 구조를 시사한다.

〈표 Ⅲ-8〉 기초연금 수급자의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율

(단위: 만 원, %)

구분		처분가능소득 ¹⁾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흑자액	흑자율 ²⁾	평균소비성향 ³⁾
전체		120.0	37.5	31.3	68.7
성별	남성	133.2	43.5	32.7	67.3
	여성	111.1	33.5	30.1	69.9
연령대	65~69세	154.8	59.9	38.7	61.3
	70~79세	118.1	35.4	30.0	70.0
	80세 이상	87.3	17.9	20.5	79.5
거주지역	대도시	126.2	44.8	35.5	64.5
	중소도시	113.3	31.2	27.5	72.5
	농어촌	112.8	24.8	22.0	78.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12.6	43.4	38.6	61.4
	노인부부 ⁴⁾	133.6	41.1	30.8	69.2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21.4	5.9	4.8	95.2

주 1: 처분가능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사적이전지출 - 이자 - 세금 및 공적보험료)

주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주 3: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주 4: 노인 부부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향유하는 소득과 지출 수준을 고려하였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성별로 보면, 남성 수급자(133.2만원)가 여성 수급자(111.1만원)보다 처분가능소득 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과 잔여 재원 모두 남성이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154.8만원) 집단의 처분가능소득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87.3만원)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며, 고령화될수록 저축 여력도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80세 이상 집단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과 시장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을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없이 가계 수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처분가능소득 및 흑자액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며,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112.6만원)의 처분가능소득이 노인 부부가구(133.6만원)나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121.4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2.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및 필요 생활비

앞 절에서는 처분가능소득과 가계수지를 통해 수급자의 저축 여력과 소비구조를 살펴보고, 특히 흑자율과 평균소비성향과 같은 지표를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평소 저축 여력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가계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고령층(80세 이상)과 노인 단독가구에서 재정적 취약성이 높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본 절에서는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했을 경우 생활비 마련 방법, 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에 대한 생각, 기초연금의 주된 사용처 등 수급자의 지출에 대한 수요 및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비 마련 방법

먼저, 지난 1년(2024년) 동안 가계수지 적자 경험 여부를 살펴본 후, 적자 경험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분석 하였다.

〈표 III-9〉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수급자는 전체의 24.0%로 나타났고, 남성은 23.0%, 여성은 24.6%로 여성의 비율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22.0%, 70~79세 23.7%, 80세 이상 26.5%로, 연령이 높을수록 적자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수급자의 적자 경험 비율이 34.3%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26.2%, 대도시는 20.1%로 나타나, 농어촌에서 가계수지 적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 22.4%, 노인 부부가구 25.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27.6%로, 가구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표 Ⅲ-9〉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난 1년(2024년) 동안 가계수지 적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가계수지 적자 경험 여부		
		예	아니오	합계
전체		24.0	76.0	100.0
성별	남성	23.0	77.0	100.0
	여성	24.6	75.4	100.0
연령대	65~69세	22.0	78.0	100.0
	70~79세	23.7	76.3	100.0
	80세 이상	26.5	73.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0.1	79.9	100.0
	중소도시	26.2	73.8	100.0
	농어촌	34.3	65.7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2.4	77.6	100.0
	노인부부	25.3	74.7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7.6	72.4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10〉가계수지 적자 경험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4.1	자녀·친척의 도움 35.4
성별	남성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60.1	자녀·친척의 도움 29.2
	여성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0.3	자녀·친척의 도움 39.4
연령대	65~69세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2.5	자녀·친척의 도움 27.3
	70~79세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60.0	자녀·친척의 도움 30.9
	80세 이상	항목 비율	자녀·친척의 도움 48.3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47.8
거주지역	대도시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0.1	자녀·친척의 도움 40.0
	중소도시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2.3	자녀·친척의 도움 34.5
	농어촌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68.3	자녀·친척의 도움 25.9
가구 형태	노인단독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1.4	자녀·친척의 도움 37.0
	노인부부	항목 비율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66.4	자녀·친척의 도움 24.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항목 비율	자녀·친척의 도움 38.6	저축·예적금·보험 등 해약 52.0

주: 본 문항에 394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묻은 결과(표 Ⅲ-10), 생활비 마련 방식은 크게 두 가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저축·예적금·보험 등을 해약하여 충당했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5.4%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저축·예적금·보험 해약을 통한 마련 비율이 60.1%로 여성(50.3%)보다 높았고, 여성은 자녀·친척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39.4%)가 남성(29.2%)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와 70~79세에서 저축·예적금 해약 비율이 각각 52.5%, 60.0%로 높게 나타났으나, 80세 이상에서는 자녀·친척의 도움(48.3%)과 저축·예적금 해약(47.8%)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저축·예적금 해약이 각각 50.1%, 52.3%이지만, 농어촌에서는 해당 비율이 68.3%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도 노인 부부가구에서는 저축·예적금 해약(66.4%)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는 자녀·친척 도움(38.6%)과 저축·예적금 해약(52.0%)이 혼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나. 월 최소 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 노인의 월 최소 생활비와 월 적정 생활비를 분석하였다.

〈표 Ⅲ-11〉에 따르면, 개인(1인) 기준 월 최소 생활비는 108.9만 원, 월 적정 생활비는 151.7만 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소 생활비가 176.8만 원, 월 적정 생활비는 242.2만 원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최소 및 적정 생활비를 소폭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 생활비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거주 지역별에서는 대도시 거주자의 생활비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는 최소·적정 생활비 수준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1〉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소·적정 생활비

(단위: 만 원)

구분		개인기준		부부기준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전체		108.9	151.7	176.8	242.2
성별	남성	111.0	154.8	179.5	245.3
	여성	107.5	149.6	175.0	240.1
연령대	65~69세	115.7	161.5	186.9	256.4
	70~79세	108.9	151.1	177.0	241.7
	80세 이상	101.8	142.6	166.1	228.5
거주지역	대도시	110.7	159.7	177.8	249.8
	중소도시	110.5	146.1	176.8	233.2
	농어촌	96.7	133.2	172.1	235.6
가구 형태	노인단독	106.5	147.7	173.9	236.7
	노인부부	109.1	151.4	177.4	243.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18.3	169.2	187.7	262.8

주: 구분은 분석값의 특성이 아닌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사용처

기초연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Ⅲ-12〉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사용처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항목 비율	식비 74.2	주거관련비 8.2	보건의료비 6.0
성별	남성	항목 비율	식비 71.3	주거관련비 9.0	보건의료비 6.3
	여성	항목 비율	식비 76.1	주거관련비 7.7	보건의료비 5.8
연령대	65~69세	항목 비율	식비 72.0	주거관련비 8.0	외식비 7.6
	70~79세	항목 비율	식비 75.6	주거관련비 8.5	보건의료비 4.9
	80세 이상	항목 비율	식비 74.3	보건의료비 8.1	주거관련비 10.4
거주지역	대도시	항목 비율	84.0 78.0	6.5 8.2	3.2 4.5
	중소도시	항목 비율	식비 65.5	주거관련비 11.9	외식비 6.6
	농어촌	항목 비율	식비 57.0	보건의료비 15.9	외식비 15.4
가구 형태	노인단독	항목 비율	식비 78.1	주거관련비 7.9	보건의료비 6.2
	노인부부	항목 비율	식비 66.9	주거관련비 10.6	외식비 5.5
	(손)자녀 동거 및 기타	항목 비율	식비 74.0	보건의료비 6.3	외식비 5.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12〉에 따르면, 전체 기준으로 기초연금 사용의 1순위 지출 비목은 ‘식비’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 지출은 ‘주거관련비’가 8.2%, 3순위 지출로는 ‘보건의료비’가 6.0%를 차지하였다. 즉, 기초연금은 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관련된 식비·주거비·의료비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2·3순위 항목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1순위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식비를 선택하고 있어, 기초연금이란 노인의 기본 생계비 보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주거 생활 실태

앞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지출 및 가계수지, 생활비 마련 방식, 최소·적정 생활비 인식, 기초연금 사용처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 형태, 입주 형태, 주택 규모 등을 통해 주거 생활 실태를 간략히 검토한다.

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거 상황

본 조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수급자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47.9%,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9.3%,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은 22.3%, 기타는 0.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간 주택 유형 분포에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집단 모두 아파트 거주 비율이 대체로 45~49% 수준에 분포해, 연령대별 큰 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역별로는 차이가 뚜렷한데, 농어촌에서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75.0%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14.4%로 낮다. 대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51.2%, 54.8%로 높고,

단독주택 비율은 대도시 17.7%, 중소도시 30.7%로 나타난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45.2%, 노인 부부가구는 49.7%,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는 55.5%로, 소폭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율도 가구 형태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인 단독·부부·동거 가구 간에 극단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기타 ¹⁾	합계
전체		29.3	47.9	22.3	0.5	100.0
성별	남성	28.8	47.6	22.9	0.7	100.0
	여성	29.6	48.2	21.8	0.3	100.0
연령대	65~69세	26.8	48.0	24.7	0.5	100.0
	70~79세	28.3	49.4	22.0	0.3	100.0
	80세 이상	33.3	45.8	20.2	0.7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7.7	51.2	30.9	0.3	100.0
	중소도시	30.7	54.8	13.6	0.9	100.0
	농어촌	75.0	14.4	10.2	0.4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9.6	45.2	24.7	0.4	100.0
	노인부부	32.0	49.7	17.8	0.5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2.0	55.5	21.8	0.7	100.0

주1: 기타 응답으로는 농막,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의 응답이 있었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주택 입주 형태를 보면(〈표 Ⅲ-14〉), 전체 기준으로 자가 비율은 63.6%, 전세는 13.3%, 보증부 월세는 16.4%, 무보증 월세는 0.4%, 기타는 6.3%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자가·전세·월세 비중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연령별로는 고령일수록 자가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전세 비율은 6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자가 비율이 74.6%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60.8%, 대도시는 62.9% 수준이다. 대도시에서는 전세 비율이 17.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월세 비중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가구의 자가 비율이 54.4%, 노인 부부가구는 78.1%로, 노인 부부가구의 자가 보유 비중이 가장 높다.

〈표 III-14〉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 입주 형태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합계
				보증부	무보증		
전체		63.6	13.3	16.4	0.4	6.3	100.0
성별	남성	65.0	12.6	17.4	0.2	4.8	100.0
	여성	62.7	13.8	15.7	0.5	7.4	100.0
연령대	65~69세	61.2	15.4	19.0	0.7	3.8	100.0
	70~79세	64.3	12.4	17.8	0.4	5.1	100.0
	80세 이상	65.0	12.5	11.6	0.2	10.6	100.0
거주지역	대도시	62.9	17.3	15.8	0.1	3.8	100.0
	중소도시	60.8	11.4	19.2	0.4	8.1	100.0
	농어촌	74.6	1.7	10.3	1.6	11.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54.4	16.7	22.0	0.6	6.4	100.0
	노인부부	78.1	8.3	10.6	0.2	2.9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0.4	10.3	5.6	0.0	13.7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거주 주택의 면적 분포를 보면(〈표 III-15〉), 전체 수급자의 주택 면적은 평균 70.45㎡이며, 33㎡ 이하 주택 거주 비율은 1.6%, 34~66㎡ 구간이 41.9%, 67~99㎡가 42.0%, 99㎡ 초과가 14.5%로 나타난다. 성별·연령·거주지역·가구 형태별로 보면, 농어촌이나 노인 부부 및 (손)자녀 동거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는 평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다.

〈표 Ⅲ-15〉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주택의 면적

(단위: %, m²)

구분		33m ² 이하	34m ² ~66m ²	67m ² ~99m ²	99m ² 초과	평균(m ²)
전체		1.6	41.9	42.0	14.5	70.45
성별	남성	1.6	39.8	41.7	16.9	72.48
	여성	1.5	43.4	42.2	12.9	69.06
연령대	65~69세	1.6	40.1	43.0	15.4	71.25
	70~79세	1.4	45.4	39.4	13.8	69.48
	80세 이상	1.7	38.7	44.8	14.8	71.05
거주지역	대도시	1.8	46.5	39.2	12.4	67.17
	중소도시	1.3	41.1	42.1	15.5	72.09
	농어촌	1.2	24.6	53.3	20.9	79.79
가구 형태	노인단독	2.7	51.6	36.7	9.1	63.91
	노인부부	0.2	33.1	47.4	19.4	77.05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20.9	52.3	26.8	83.2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4. 수급자의 재산 및 부채 보유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가운데, 먼저 차량 보유 실태를 살펴본다.

〈표 Ⅲ-16〉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중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비율은 77.9%, 차량 1대를 보유한 비율은 21.4%, 2대 이상 보유는 0.7%로, 다수의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미보유 65.0%, 1대 보유 33.9%, 2대 이상 1.1%로, 남성의 차량 보유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 여성은 미보유 86.7%, 1대 12.9%, 2대 이상 0.4%로 나타났다.

〈표 Ⅲ-16〉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미보유	1대	2대 이상	합계
전체		77.9	21.4	0.7	100.0
성별	남성	65.0	33.9	1.1	100.0
	여성	86.7	12.9	0.4	100.0
연령대	65~69세	61.3	37.7	1.0	100.0
	70~79세	77.7	21.5	0.8	100.0
	80세 이상	95.4	4.5	0.1	100.0
거주지역	대도시	79.3	20.3	0.4	100.0
	중소도시	76.6	22.6	0.8	100.0
	농어촌	75.9	22.4	1.7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93.1	6.9	-	100.0
	노인부부	57.3	41.0	1.7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9.7	38.8	1.5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연령대별로는 65~69세 집단에서 차량 1대 이상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1대 37.7%, 2대 이상 1.0%), 나이가 많을수록 보유 비율이 감소하여, 80세 이상에서는 차량 미보유 비율이 95.4%에 달한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 수급자의 차량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가구의 차량 보유 비율(1대 41.0%, 2대 이상 1.7%)이 노인 단독가구(1대 6.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표 Ⅲ-17〉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유형

(단위: %)

구분		소형 경형차	중형차	대형차	수소· 전기차	화물차	합계
전체		28.0	54.8	4.0	0.5	12.7	100.0
성별	남성	27.6	56.2	4.9	0.7	10.6	100.0
	여성	28.7	52.4	2.5	0.0	16.4	100.0
연령대	65~69세	26.4	56.8	3.1	0.0	13.7	100.0
	70~79세	29.6	52.3	4.8	0.6	12.8	100.0
	80세 이상	30.0	55.7	6.7	3.9	3.6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9.9	60.4	3.2	1.0	5.5	100.0
	중소도시	28.2	56.3	4.7	0.0	10.8	100.0
	농어촌	20.2	30.4	5.1	0.0	44.3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36.1	53.6	3.8	0.0	6.5	100.0
	노인부부	22.7	54.8	3.2	0.0	19.3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34.3	55.8	6.2	1.9	1.8	100.0

주1: 수급자와 배우자의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가액이 가장 높은 1대를 기준으로 조사

주2: 소형·경형차는 1600cc 미만의 차량, 중형차는 1600~2000cc 미만의 차량, 대형차는 2000cc 이상의 차량으로 구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차량 유형별 분포(〈표 Ⅲ-17〉)를 보면, 중형차가 5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형·경형차는 28.0%, 대형차는 4.0%, 화물차는 12.7% 정도이다. 수소·전기차는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응답에서는 매우 낮거나 보고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차량 가액 분포는 1,000만원 미만이 65.9%로 나타났고, 1,000~2,000만원이 28.8%로 나타났다.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했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표 III-18〉 기초연금 수급자의 차량 가액 분포

(단위: %)

구분		1,000만 원 미만	1,000 ~2,000 만원	2,000 ~3,000 만원	3,000 ~4,000 만원	4,000만 원 이상	합계
전체		54.7	38.2	7.0	0.2	0.0	100.0
성별	남성	53.6	38.8	7.3	0.4	0.0	100.0
	여성	56.6	37.0	6.4	0.0	0.0	100.0
연령대	65~69세	51.1	42.8	6.1	0.0	0.0	100.0
	70~79세	61.4	31.2	6.9	0.5	0.0	100.0
	80세 이상	37.4	48.2	14.5	0.0	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50.4	41.4	8.2	0.0	0.0	100.0
	중소도시	62.3	32.3	4.8	0.6	0.0	100.0
	농어촌	48.9	42.8	8.3	0.0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60.6	26.8	12.7	0.0	0.0	100.0
	노인부부	60.1	35.6	4.3	0.0	0.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4.7	38.2	7.0	0.2	0.0	100.0

주1: 수급자와 배우자의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가액이 가장 높은 1대를 기준으로 조사

주2: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중고가액에 대해 질문했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차량 가액 분포(〈표 III-18〉)를 보면, 전체 수급자 차량의 중고가액 기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54.7%, 1,000만~2,000만 원 구간이 38.2%, 2,000만~3,000만 원이 7.0%, 3,000만~4,000만 원은 0.2%, 4,000만 원 이상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시가표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수급에서 탈락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에서는 시가 및 중고가 기준으로 응답을 받았고,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시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Ⅲ-19〉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실물재산액

(단위: 만 원)

구분		주택가격	보증금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기타 실물재산	실물재산 총액
		자가	전세	월세			
전체		12,220	1,475	338	394	262	14,690
성별	남성	12,967	1,432	383	568	317	15,667
	여성	11,712	1,504	307	276	225	14,025
연령 대	65~69세	12,414	1,681	416	360	357	15,227
	70~79세	12,179	1,311	383	426	239	14,538
	80세 이상	12,082	1,505	192	384	200	14,362
거주 지역	대도시	14,595	1,735	347	152	224	17,053
	중소도시	9,995	1,563	406	586	175	12,725
	농어촌	8,402	110	105	882	679	10,179
가구 형태	노인단독	9,088	1,543	404	217	141	11,392
	노인부부	15,266	1,272	276	646	435	17,894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8,623	1,638	200	585	391	21,43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실물재산을 보면(〈표 Ⅲ-19〉), 전체 수급자 기준으로 자가 주택가격 평균은 12,220만 원, 전세보증금은 1,475만 원, 월세 보증금은 338만 원,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가액은 394만 원, 기타 실물재산은 262만 원이며, 이를 합한 실물재산 총액은 평균 14,69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실물재산 규모가 다소 차이를 보이며, 특히 노인 부부가구와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 실물재산 수준이 높은 편이다.

〈표 III-20〉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금융재산액

(단위: 만 원)

구분		현금·예적금·보험 저축액	주식·채권 투자액	거주 주택 이외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총액
전체		2,650	71	13	2,734
성별	남성	2,853	107	21	2,981
	여성	2,512	46	7	2,565
연령 대	65~69세	2,842	106	36	2,984
	70~79세	2,716	76	6	2,798
	80세 이상	2,356	27	-	2,383
거주 지역	대도시	2,008	68	20	2,096
	중소도시	3,049	88	5	3,142
	농어촌	4,265	31	6	4,302
가구 형태	노인단독	2,052	27	5	2,084
	노인부부	3,883	81	6	3,97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455	231	61	2,74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금융재산은 대부분 유동성이 높은 현금·예적금·보험 등 저축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표 III-20〉). 전체 수급자의 현금·예적금·보험 저축액 평균은 2,650만 원, 주식·채권 투자액은 71만 원, 거주 주택 이외의 임차보증금은 13만 원으로, 이를 합한 금융재산 총액은 2,734만 원이다. 농어촌 거주자나 노인 부부가구의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표 Ⅲ-21〉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부채액

(단위: 만 원)

구분		담보 대출	신용 대출	신용카드 관련	외상, 할부 미상환 금액	임대 보증금	기타 부채	부채 총액
전체		471	71	7	6	40	25	620
성별	남성	531	99	9	9	60	48	756
	여성	429	52	6	5	26	9	527
연령 대	65~69세	881	193	21	11	46	26	1,178
	70~79세	345	28	2	6	47	26	454
	80세 이상	233	10	1	2	24	21	290
거주 지역	대도시	517	44	6	4	22	21	613
	중소도시	528	111	7	10	61	29	746
	농어촌	108	72	13	7	59	30	288
가구 형태	노인단독	295	68	3	4	23	17	410
	노인부부	586	58	12	13	65	41	775
	(손)자녀 동거 및 기타	948	110	13	5	58	23	1,15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부채 현황(〈표 Ⅲ-21〉)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평균 부채 총액은 620만원이며, 이 중 담보대출이 471만 원, 신용대출이 71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관련 미상환액, 외상·할부,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 기타 부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층과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 부채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재산·부채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어 수급 여부와 수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노인의 재산·부채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제한적인 편이며,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집단의 자산·부채 구조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과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현재 경제활동 상태, 종사 업종, 근로시간 및 소득 수준 등 기초적인 실태를 검토하고, 이어서 현재 일자리 만족도와 불만족 사유, 향후 경제활동 의향과 그 이유를 중심으로 수급자의 태도와 인식을 분석한다.

1. 경제활동 참여 상태

본 조사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세 범주로 구분했다. 하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음’,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일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음’, 마지막은 ‘평생 일한 경험이 없음’으로 분류하여 응답을 받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 시점 기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으며, 과거에 일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였다. 평생 일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6%로 나타나, 다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애 어느 시점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의 46.7%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40.1%보다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평생 일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0.6%, 여성은 10.6%로, 여성에게서 비경제활동 생애 경로를 가진 비율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생애 경력 단절, 가사·돌봄 역할 집중 등 전통적인 성 역할 구조와 연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집단에서 현재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6.8%로 가장 높았고, 70~79세는 45.0%, 80세 이상 집단은 14.9%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뚜렷이 감소했다. 반대로 ‘평생 일한 적 없음’ 비율은 65~69세 3.3%, 70~79세 5.3%, 80세 이상 11.8%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고령 세대일수록 공식 노동시장과의 접점이 더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표 Ⅲ-22〉 조사 시점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일을 하고 있음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평생 일한 적 없음	합계
전체		42.8	50.7	6.6	100.0
성별	남성	46.7	52.7	0.6	100.0
	여성	40.1	49.3	10.6	100.0
연령대	65~69세	66.8	30.0	3.3	100.0
	70~79세	45.0	49.7	5.3	100.0
	80세 이상	14.9	73.3	11.8	100.0
거주지역	대도시	40.0	50.7	9.3	100.0
	중소도시	44.9	51.7	3.4	100.0
	농어촌	48.5	47.8	3.7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42.0	49.3	8.8	100.0
	노인부부	48.2	50.0	1.9	100.0
	(손)자녀 동거	34.2	58.2	7.6	100.0
	및 기타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거주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수급자의 40.0%, 중소도시 수급자의 44.9%, 농어촌 수급자의 48.5%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소 높은 양상을 보였다. 반면 '평생 일한 적 없음' 비율은 대도시 9.3%, 중소도시 3.4%, 농어촌 3.7%로 대도시 수급자에게서 해당 비중이 다소 높았다.

가구 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단독 가구 수급자의 42.0%,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의 48.2%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부부 동거 가구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생 일한 적 없음' 비율은 노인

단독 가구 8.8%, 노인 부부 가구 1.9%,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7.6%로, 부부 가구에서 평생 비경제활동 경로를 가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과거에 일을 했으나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를 파악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선택된 이유는 ‘창업 또는 가족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로 47.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 종료’가 22.9%,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10.9%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리하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이 7.3%, ‘일이 임시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가 4.7%,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2.1%,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서’가 2.0%, ‘수입이 적어서’가 1.2%, ‘적성과 지식·기능이 맞지 않아서’가 0.4%, ‘가족 간병을 위해서’가 0.4%, ‘그냥 쉬고 싶어서’가

〈표 Ⅲ-23〉 일을 그만둔 이유

(단위: %)

순위	구분	비율
1	창업 또는 가족의 일을 도와주려고	47.7
2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22.9
3	건강이 좋지 않아서	10.9
4	정리하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7.3
5	일이 임시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4.7
6	근로시간(환경)이 나빠서	2.1
7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2
8	수입이 적어서	1.2
9	적성·지식·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0.4
10	가족 간병 때문에	0.4
11	그냥 쉬고 싶어서	0.4
합계		100.0

주: 본 문항은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일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1,016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0.4%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 수급자가 정년·계약 종료나 건강 악화 등 비교적 전형적인 은퇴 경로 외에도, 창업이나 가족 일을 돕기 위한 선택 등 자발적·전환적 사유로 기존 일자리를 그만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정리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 사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III-24>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종사 중인 일자리의 업종 유형을 살펴본 것으로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청소업무’가 1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14.1%, ‘공공질서 유지 관련 일자리’가 12.7%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가 종사하는 주요 직종은 청소·환경 정비, 판매·서비스, 공공질서 유지 등 비교적 단순·노동집약적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수급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와 같은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일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28.9%가 정부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71.1%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율이 35.0%로, 남성의 21.1%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인의 경우 시장형 일자리보다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 수급자는 12.5%만이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70~79세는 33.5%, 80세 이상은 83.8%로 고령층일수록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특히 80세 이상 집단에서 정부지원 일자리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24〉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종류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항목	청소업무	판매·서비스직	공공질서유지
	비율	18.3	14.1	12.7
성별	남성	항목	청소업무	농림어업
		비율	12.5	12.1
	여성	항목	판매·서비스직	가사·돌봄
		비율	22.9	14.0
연령 대	65~69세	항목	판매·서비스직	청소업무
		비율	17.2	13.4
	70~79세	항목	청소업무	공공질서유지
		비율	19.3	16.7
	80세 이상	항목	청소업무	공공질서유지
		비율	36.3	27.4
거주 지역	대도시	항목	판매·서비스직	청소업무
		비율	22.9	22.4
	중소도시	항목	공공질서유지	농림어업
		비율	17.7	15.1
	농어촌	항목	농림어업	청소업무
		비율	29.5	15.9
가구 형태	노인단독	항목	청소업무	공공질서유지
		비율	23.0	15.4
	노인부부	항목	농림어업	판매·서비스직
		비율	20.5	11.6
	(손)자녀 동거 및 기타	항목	판매·서비스직	청소업무
		비율	19.5	15.1
		항목	청소업무	생산작업
		비율	10.1	10.1

주 1: 본 문항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832명이 응답

주 2: 특성별 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로 3가지 일자리 종류만 기재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Ⅲ-25〉 현재 일자리의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단위: %)

구분		정부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해당	비해당	합계
전체		28.9	71.1	100.0
성별	남성	21.1	78.9	100.0
	여성	35.0	65.0	100.0
연령대	65~69세	12.5	87.5	100.0
	70~79세	33.5	66.5	100.0
	80세 이상	83.8	16.2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1.4	78.6	100.0
	중소도시	30.5	69.5	100.0
	농어촌	51.0	49.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35.8	64.2	100.0
	노인부부	21.0	79.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7.2	82.8	100.0

주: 본 문항은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701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농어촌 수급자의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율이 51.0%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30.5%, 대도시 21.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 수급자의 35.8%,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의 21.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수급자의 17.2%가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 기회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수급자가 현재 일하는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임시근로자가 3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일용근로자가 30.2%, 자영업자가 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상용근로자는 9.9%, 고용주는 0.4%, 의존계약자는 1.2%, 기타는 0.1%의 비중을 보였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 다수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인 자영업 비중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상용근로자 13.8%, 임시근로자 33.9%, 일용근로자 26.9%, 자영업 24.3%로, 여성에 비해 상용근로와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성은 임시근로자 43.0%, 일용근로자 32.8%, 자영업 15.3%로 임시·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가 더 두드러진다.

연령별로 보면, 65~69세 수급자는 상용근로자 13.8%, 임시근로자 34.4%, 일용근로자 30.5%, 자영업 18.4%로, 비교적 다양한 지위에 분포해 있으나 여전히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다. 70~79세 집단에서는 임시근로자 38.8%, 일용근로자 30.9%, 자영업 21.5%로,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80세 이상 집단에서는 임시근로자가 60.9%, 일용근로자가 25.3%, 자영업이 13.9%로, 고령층일수록 임시직 형태의 고용에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진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상용근로자 15.5%, 임시근로자 45.2%, 일용근로자 22.4%, 자영업 15.2%로 임시근로 비중이 매우 크고, 중소도시는 임시근로자 27.7%, 일용근로자 42.6%, 자영업 22.9%로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특히 높다. 농어촌에서는 임시근로자 46.8%, 일용근로자 24.6%, 자영업 24.4%로, 임시근로 비중 역시 높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노인 단독 가구 수급자의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합계 비중이 높고,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는 자영업 비중(30.3%)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부부 가구의 경우 영세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III-26〉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의존계 약자	기타	합계
전체		9.9	39.0	30.2	0.4	19.3	1.2	0.1	100.0
성별	남성	13.8	33.9	26.9	0.3	24.3	0.5	0.3	100.0
	여성	6.8	43.0	32.8	0.4	15.3	1.7	0.0	100.0
연령대	65~69세	13.8	34.4	30.5	0.8	18.4	1.8	0.3	100.0
	70~79세	8.0	38.8	30.9	0.0	21.5	0.8	0.0	100.0
	80세 이상	0.0	60.9	25.3	0.0	13.9	0.0	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5.5	45.2	22.4	0.5	15.2	1.0	0.2	100.0
	중소도시	5.1	27.7	42.6	0.3	22.9	1.3	0.0	100.0
	농어촌	2.5	46.8	24.6	0.0	24.4	1.7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8.2	41.6	36.1	0.2	12.6	1.3	0.0	100.0
	노인부부	10.5	36.1	21.3	0.7	30.3	1.0	0.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6.4	34.8	27.0	0.0	19.7	1.1	1.1	100.0

주: 본 문항에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832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월 소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평균 시급을 살펴보았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5.9시간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당 29.8시간, 여성은 주당 22.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남성이 더 긴 시간 근로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수급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30.7시간으로 가장 길고, 70~79세는 24.1시간, 80세 이상은 12.5시간으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부 또는 자녀 동거 가구에서 근로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한편, 현재 일자리에서 얻는 월 소득은 전체 평균 10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수급자는 월 129.6만원, 여성 수급자는 89.8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65~69세 수급자의 월 소득이 136.3만원으로 가장 높고, 70~79세는 93.2만원, 80세 이상은 36.8만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크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수급자의 월 소득이 133.7만원, 중소도시는 85.2만원, 농어촌은 72.8만원으로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 수급자는 월 92.3만원,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는 122.3만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수급자는 138.6만원으로, 부부 및 동거 가구에서 근로소득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평균 시급을 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1만 200원 수준(표상 1.02 ‘만 원/일’ 표기)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시급이 1.08, 여성은 0.97(만 원 단위)로 남성이 다소 높은 수준이며, 대도시 거주 수급자의 평균 시급(1.07)이 농어촌 수급자의 평균 시급(0.88)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Ⅲ-27〉 현재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 소득

(단위: 시간, 만 원)

구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시간 / 주)	월 소득 (만 원 / 월)	평균 시급 (만 원 / 시간)
전체		25.9	107.3	1.02
성별	남성	29.8	129.6	1.08
	여성	22.9	89.8	0.97
연령대	65~69세	30.7	136.3	1.06
	70~79세	24.1	93.2	0.97
	80세 이상	12.5	36.8	1.00
거주지역	대도시	29.6	133.7	1.07
	중소도시	23.0	85.2	0.99
	농어촌	20.9	72.8	0.88
가구 형태	노인단독	23.2	92.3	1.06
	노인부부	29.1	122.3	0.94
	(손)자녀 동거	30.1	138.6	0.99
	및 기타			

주: 본 문항에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853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2.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27.6%, '매우 만족'이 10.6%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은 9.2%, '매우 불만족'은 0.6%에 그쳤다.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표 III-28〉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6	9.2	27.6	52.0	10.6	100.0	3.63
성별	남성	1.3	10.8	29.9	51.3	6.6	100.0	3.51
	여성	0.0	8.0	25.8	52.4	13.7	100.0	3.72
연령대	65~69세	0.3	9.7	31.7	51.4	6.9	100.0	3.55
	70~79세	0.8	9.5	26.0	52.0	11.7	100.0	3.64
	80세 이상	1.1	5.8	16.4	54.4	22.3	100.0	3.91
거주 지역	대도시	0.2	15.4	28.9	52.7	2.8	100.0	3.42
	중소도시	0.7	4.2	30.1	49.7	15.3	100.0	3.75
	농어촌	1.6	0.8	16.8	55.3	25.5	100.0	4.02
가구 형태	노인단독	0.2	11.3	24.0	50.4	14.1	100.0	3.67
	노인부부	0.7	6.3	33.2	53.8	6.0	100.0	3.58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3	7.6	29.3	54.2	6.5	100.0	3.55

주: 본 문항에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853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성별로 보면, 남성의 만족도 평균은 3.51점, 여성의 만족도 평균은 3.72점으로, 여성 수급자의 현재 일자리 만족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수급자의 만족도 평균이 3.91점으로 가장 높으며,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수급자의 만족도 평균이 4.02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3.75점, 대도시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 수급자의 만족도 평균이 3.67점, 노인 부부 가구는 3.58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는 3.55점으로, 전반적으로 3.5점 이상 수준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그 구체적인 불만족 사유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이유는 ‘낮은 급여’가 54.7%에 달했고, 그 다음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27.5%, ‘일이 힘들다’는 응답이 8.3% 순이었다. 즉, 임금 수준과 고용의 안정성이 현재 일자리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9〉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 사유

(단위: %)

구분		낮은 급여	일이 힘듦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일의 내용	기타	합계
전체		54.7	8.3	27.5	6.0	1.2	2.4	100.0
성별	남성	47.4	8.7	35.1	6.7	0.0	2.1	100.0
	여성	63.4	7.8	18.3	5.3	2.6	2.7	100.0
연령 대	65~69세	48.9	5.1	30.5	10.4	2.6	2.6	100.0
	70~79세	61.2	10.2	23.5	2.6	0.0	2.5	100.0
	80세 이상	50.3	16.3	33.4	0.0	0.0	0.0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56.0	7.5	28.8	4.6	0.0	3.0	100.0
	중소도시	46.9	6.8	26.7	13.1	6.5	0.0	100.0
	농어촌	66.8	33.2	0.0	0.0	0.0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56.3	7.3	32.8	3.7	0.0	0.0	100.0
	노인부부	60.2	14.9	9.7	5.2	0.0	9.9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33.4	0.0	34.0	21.7	10.9	0.0	100.0

주: 본 문항에는 현재 일하는 수급자 중 일자리에 불만족한다는 84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3.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및 이유

이어서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 여부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7.4%가 ‘앞으로도(또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52.6%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해, 근소한 차이로 향후 경제활동 비희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0〉 향후 경제활동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계속) 일하고 싶음	일하고 싶지 않음	합계
전체		47.4	52.6	100.0
성별	남성	52.1	47.9	100.0
	여성	44.2	55.8	100.0
연령대	65~69세	70.8	29.2	100.0
	70~79세	51.1	48.9	100.0
	80세 이상	17.8	82.2	100.0
거주지역	대도시	41.3	58.7	100.0
	중소도시	54.8	45.2	100.0
	농어촌	52.2	47.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45.3	54.7	100.0
	노인부부	55.5	44.5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38.1	61.9	100.0
현재 취업상태	취업	88.1	11.9	100.0
	비취업	17.4	82.6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성별로 보면, 남성의 52.1%가 일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44.2%보다 경제활동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수급자의 70.8%가 응답해 가장 높은 의향을 보였으며, 고령일수록 경제활동 의향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수급자의 54.8%와 농어촌 수급자의 52.2%가 경제활동 참여 의향을 밝힌 반면, 대도시 수급자는 41.3%만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의 55.5%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경제활동 의향이 가장 높았다.

또한 현재 취업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이미 취업 중인 수급자 가운데 88.1%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속 의향을 보였으며,

비취업 수급자 중 82.6%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여 현재의 경제활동 상태가 향후 의향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참여 활동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어떤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빈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이 사회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참여 빈도도 함께 분석한다.

1. 사회활동 참여 여부

본 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활동은 크게 여섯 범주로 나누었는데, 우선 사교활동은 계모임, 경로당, 동창회 등 모임은 의미하고, 취미·여가 활동은 동호회, 동아리 등의 취미 모임을, 종교활동은 예배, 미사, 불공 등 일상적인 종교 관련 활동, 자원봉사는 복지관·종교기관·국제기구 등에서의 봉사활동, 학습활동은 강좌 수강, 온라인 학습 등 배움 활동, 정치·사회활동은 정당 가입,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각 활동별 참여 여부를 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7.3%가 사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취미·여가활동 참여율은 31.6%, 종교활동 참여율은 25.6%였다. 반면 자원봉사(2.4%), 학습활동(2.8%), 정치·사회활동(0.5%)은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 보면, 사교활동 참여율은 남성 56.6%, 여성 57.8%로 큰 차이가 없지만, 취미·여가활동은 남성 32.7%, 여성 30.8%로 남성이 조금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종교활동은 여성 30.2%, 남성 18.8%로, 여성의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 뚜렷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의 사교활동 참여율이 61.7%로 가장 높고,

70~79세는 57.5%, 80세 이상은 52.6%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교활동 참여가 다소 감소했다. 취미·여가활동 참여율도 65~69세 35.9%, 70~79세 32.7%, 80세 이상 25.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 확인된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70~79세(27.7%)와 80세 이상(27.8%)에서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Ⅲ-31〉 사회활동 참여 비율

		(단위: %)					
구분		사교활동	취미·여가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학습활동	정치·사회 활동
전체		57.3	31.6	25.6	2.4	2.8	0.5
성별	남성	56.6	32.7	18.8	2.3	2.6	0.6
	여성	57.8	30.8	30.2	2.5	2.9	0.3
연령대	65~69세	61.7	35.9	20.5	2.4	3.3	0.7
	70~79세	57.5	32.7	27.7	3.3	2.9	0.5
	80세 이상	52.6	25.5	27.8	1.2	2.1	0.2
거주지역	대도시	53.9	29.9	25.5	2.2	1.5	0.7
	중소도시	64.6	31.5	28.6	3.2	5.1	0.0
	농어촌	51.5	39.2	17.6	1.2	1.2	0.8
가구 형태	노인단독	54.8	28.7	26.1	2.2	2.6	0.4
	노인부부	64.2	34.7	20.9	2.3	3.7	0.5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2.8	36.6	33.9	3.4	1.1	0.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사교활동 참여율이 중소도시 64.6%, 농어촌 51.5%, 대도시 53.9%로, 중소도시 수급자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취미·여가활동은 농어촌 39.2%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는 29.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교활동 참여율은 중소도시 28.6%, 대도시 25.5%, 농어촌 17.6%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와 학습활동, 정치·사회활동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았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노인 부부 가구의 사교활동 참여율이 64.2%로 가장 높고, 노인 단독 가구는 54.8%,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는 52.8%였다. 취미·여가활동에서도 노인 부부 가구 34.7%,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36.6%, 노인 단독 가구 28.7%로, 가구 내 동거인이 있는 집단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종교활동 참여율은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33.9%가 가장 높고, 노인 단독 가구 26.1%, 노인 부부 가구 20.9% 순이었다.

〈표 Ⅲ-32〉 사회활동 참여 빈도

(단위: %)

구분	사교활동	취미·여가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학습활동	정치·사회 활동
주 4회 이상	10.0	3.3	0.2	-	9.1	-
주 2~3회	23.3	19.0	10.9	4.0	9.0	-
주 1회	25.7	33.0	74.4	28.3	71.1	22.7
2주 1회	19.6	16.2	5.5	14.5	7.3	11.3
월 1회 이하	21.5	28.5	9.0	53.2	3.6	66.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자원봉사, 학습활동, 정치·사회활동은 참여한다고 응답한 표본 수가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활동 유형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사교활동 '월 1회 이하'가 21.5%, '2주 1회' 19.6%, '주 1회' 25.7%, '주 2~3회' 23.3%, '주 4회 이상' 10.0%로 나타나, 대체로 월 1회에서 주 2~3회 사이 빈도로 꾸준히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취미·여가활동은 '주 1회'가 33.0%이고 '월 1회 이하'가 28.5% 가장 비율이 높았고, 종교활동은 '주 1회'가 74.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원봉사는 '월 1회 이하'가 53.2%로 가장 높았다. 학습활동은 '주 1회' (71.1%) 비중이 매우 크고, 정치·사회활동은 '월 1회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66.0%로 다수를 차지했다.

〈표 III-33〉 기초연금 인상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영향

(단위: %)

구분		사회활동 참여 증가	사회활동 참여 변화없음	합계
전체		54.0	46.0	100.0
성별	남성	48.5	51.5	100.0
	여성	57.7	42.3	100.0
연령대	65~69세	47.4	52.6	100.0
	70~79세	57.4	42.6	100.0
	80세 이상	56.3	43.7	100.0
거주지역	대도시	52.7	47.3	100.0
	중소도시	50.6	49.4	100.0
	농어촌	72.2	27.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56.4	43.6	100.0
	노인부부	53.6	46.4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45.6	54.4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54.0%는 기초연금 인상이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46.0%는 사회활동 참여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48.5%가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57.7%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여성 수급자에게서 기초연금 인상의 사회활동 증진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79세(57.4%)와 80세 이상(56.3%)에서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69세(47.4%)보다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수급자의 72.2%가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대도시(52.7%)나 중소도시(50.6%)에 비해 기초연금 인상의 효과를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 56.4%, 노인 부부 가구 53.6%,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45.6%가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체감했다고 응답하여, 독거 노인에게서 기초연금이 사회참여 촉진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사회활동 비참여 사유

어떠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급자에게 사회활동 비참여의 이유를 물었다. 전체 응답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이유는 ‘건강 상 이유’로 39.8%였으며, ‘비용이 들어서’가 27.9%, ‘피곤하고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17.2%, ‘다른 일로 바빠서’가 11.0%였다. 또한 ‘참여 의사는 있으나 참여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응답도 4.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 상 이유’와 ‘피곤하고 귀찮음’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심리·선호와 관련된 요인으로, 신체·정신적 여건이 사회활동 참여를 제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비용이 들어서’라는 응답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참여 방법을 잘 모름’이라는 응답 역시, 노인이 사회활동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보·경로 부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표 III-34〉 사회활동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참여 의사 있으나 참여 방법을 잘 모름	비용이 들어서	건강 상 이유	다른 일로 바쁨	피곤하고 귀찮음	합계
전체		4.0	27.9	39.8	11.0	17.2	100.0
성별	남성	5.1	30.4	28.8	14.3	21.4	100.0
	여성	3.2	26.1	48.0	8.6	14.1	100.0
연령대	65~69세	5.1	29.6	23.8	22.2	19.2	100.0
	70~79세	5.2	32.5	32.9	10.9	18.5	100.0
	80세 이상	2.1	21.7	59.0	3.1	14.2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6.1	28.6	40.6	4.5	20.2	100.0
	중소도시	2.5	35.1	29.7	21.7	11.0	100.0
	농어촌	0.0	12.7	55.3	13.7	18.3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6.1	29.1	42.3	6.9	15.6	100.0
	노인부부	1.4	26.4	31.8	19.2	21.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26.0	44.9	13.1	16.0	100.0

주: 본 문항에는 참여하는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537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3.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현재 사회활동 참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분야와 희망 빈도를 조사했다.

먼저 희망하는 활동 분야를 보면, 사교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 취미·여가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53.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종교활동(22.0%), 학습활동(4.4%), 자원봉사(6.9%), 정치·사회활동(0.7%) 등에도 일정 비율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표 III-35〉 사회활동 참여 희망 분야

(단위: %)

구분		사회활동	취미·여가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학습활동	정치·사회 활동
전체		53.8	53.0	22.0	6.9	4.4	0.7
성별	남성	55.3	52.8	16.1	7.0	4.3	0.9
	여성	52.8	53.1	26.0	6.9	4.5	0.7
연령대	65~69세	63.3	55.4	18.4	6.9	5.5	0.8
	70~79세	57.1	53.7	24.2	7.1	4.4	0.8
	80세 이상	39.3	49.5	22.5	6.8	3.4	0.5
거주지역	대도시	62.1	56.1	26.9	6.0	4.4	0.8
	중소도시	46.4	52.9	20.0	10.4	5.5	0.4
	농어촌	39.7	40.0	6.9	0.8	1.6	1.2
가구 형태	노인단독	50.9	51.3	23.1	6.6	4.2	0.8
	노인부부	56.3	57.7	15.8	6.4	4.0	0.7
	(손)자녀 동거 및 기타	60.5	49.8	31.0	9.2	6.3	0.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사회활동 참여 희망자에게 희망하는 참여 빈도를 물어본 결과, 활동 유형별로 선호하는 리듬이 서로 달랐다. 사회활동은 '주 2~3회'(32.7%)와 '주 1회'(35.7%) 비중이 높아, 주 1회 이상 비교적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아보였다. 취미·여가활동의 경우 '주 4회 이상'(24.2%)과 '주 2~3회'(26.2%), '주 1회'(26.0%) 응답이 많았고, 종교활동은 응답자의 61.4%가 '주 1회'를 희망해, 실제 종교활동 빈도와 마찬가지로 주간 예배·미사 중심의 참여 형태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자원봉사 역시 '주 1회'(57.4%) 희망이 가장 많았고, 학습활동은 '주 1회' 희망 비율이 36.1%, '2주 1회' 25.7%, '월 1회 이하' 24.9%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패턴을 보였으며, 정치·사회활동은 '주 1회'(60.2%)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36〉 사회활동 참여 희망 빈도

(단위: %)

구분	사교활동	취미·여가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학습활동	정치·사회 활동
주 4회 이상	7.7	24.2	3.4	5.7	2.2	-
주 2-3회	32.7	26.2	26.0	17.4	11.0	-
주 1회	35.7	26.0	61.4	57.4	36.1	60.2
2주 1회	17.8	15.4	5.0	14.4	25.7	19.9
월 1회 이하	6.0	8.2	4.3	5.1	24.9	19.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정치·사회활동은 참여한다고 응답한 표본 수가 적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노후 준비

본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달 이전에 노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준비 수준과 수단,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본다. 아울러 향후 자녀 세대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식에 대해 수급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인한다.

1. 노후 준비 경험 및 방법

먼저 65세 이전의 노후 준비 수준을 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3.4%만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준비는 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6.5%,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응답이 60.0%로, 사실상 96.5%의 수급자가 노후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37〉 65세 도래 이전 노후 준비 상황

(단위: %)

구분		충분히 준비	준비했으나 불충분	준비하지 않음(무함)	합계
전체		3.4	36.5	60.0	100.0
성별	남성	5.1	41.7	53.2	100.0
	여성	2.3	33.0	64.7	100.0
연령대	65~69세	3.4	42.1	54.5	100.0
	70~79세	3.7	39.5	56.9	100.0
	80세 이상	3.1	26.5	70.4	100.0
거주지역	대도시	3.1	37.1	59.8	100.0
	중소도시	4.4	36.8	58.8	100.0
	농어촌	2.4	33.3	64.4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8	28.7	68.5	100.0
	노인부부	3.0	43.4	53.6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0	54.0	39.0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성별로는 남성의 53.2%, 여성의 64.7%가 ‘준비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응답해, 여성 수급자에게서 노후 준비 부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집단에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0.4%로, 65~69세(54.5%), 70~79세(56.9%)에 비해 높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수급자의 64.4%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단독 가구의 68.5%가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전에 활용한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예금·적금·저축성 보험’을 활용했다는 응답이 29.0%였다. 그 외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식·채권, 부동산 운용 등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분석표에서는 두 가지 수단만 제시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7.5%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했다고 응답했고, 23.4%가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공적연금 활용 비율은 54.5%, 예·적금·저축성 보험은 34.0%로, 남성보다 저축성 상품을 통한 노후 준비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66.8%)와 70~79세(63.5%) 집단에서 공적연금을 활용한 비율이 높으며, 80세 이상에서는 공적연금 45.0%, 예·적금·저축성 보험 39.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축성 상품 의존도가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중소도시에서는 공적연금 비율이 각각 65.0%, 58.9%로 높은 편이었고,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 수급자의 67.3%가 가장 높은 비율로 공적연금을 활용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38〉 65세 이전 주된 노후 준비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0.7	예·적금, 저축성 보험 29.0
성별	남성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7.5	예·적금, 저축성 보험 23.4
	여성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54.5	예·적금, 저축성 보험 34.0
연령대	65~69세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6.8	예·적금, 저축성 보험 26.0
	70~79세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3.5	예·적금, 저축성 보험 26.3
	80세 이상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45.0	예·적금, 저축성 보험 39.5
거주지역	대도시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5.0	예·적금, 저축성 보험 25.8
	중소도시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58.9	예·적금, 저축성 보험 30.4
	농어촌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45.6	예·적금, 저축성 보험 39.9
가구 형태	노인단독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53.4	예·적금, 저축성 보험 35.1
	노인부부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7.3	예·적금, 저축성 보험 23.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항목 비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65.3	예·적금, 저축성 보험 25.3

주: 본 문항에는 65세 이전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했다고 답변한 800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예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에서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비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노후를 준비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응답도 44.6%에 달해, 소득 수준이 낮거나 생애 중 다른 지출 요인이 많아 노후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3.7%,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이 1.3%, ‘기타’ 0.1%로 나타났다. 즉, 자녀 부양에 대한 기대만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비교적 낮았고, 주된 원인은 경제적 여력 부족과 준비한 자산의 소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I-39〉 65세 이전에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음	노후 준비하다 가 다른 곳에 씀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이 있었음	기타	합계
전체		3.7	50.4	44.6	1.3	0.1	100.0
성별	남성	2.8	46.1	49.1	1.8	0.1	100.0
	여성	4.2	53.2	41.6	0.9	0.0	100.0
연령대	65~69세	3.5	48.2	47.5	0.5	0.2	100.0
	70~79세	3.6	50.4	45.3	0.7	0.0	100.0
	80세 이상	4.0	52.7	40.6	2.8	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6.2	59.7	33.2	0.9	0.1	100.0
	중소도시	1.1	41.7	55.5	1.7	0.0	100.0
	농어촌	0.4	35.1	62.8	1.6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4.1	55.3	39.5	1.1	0.1	100.0
	노인부부	2.1	43.4	53.2	1.4	0.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5	45.2	47.3	2.0	0.0	100.0

주: 본 문항에는 65세 이전에 불충분한 노후 준비를 했거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못했다)고 답변한 1,931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2. 자녀 세대의 노인 부양 책임 주체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 중인 자녀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노후생활비를 누가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70.6%는 ‘본인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해, 노후 준비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1.8%,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는 과거 세대에 비해 자녀 부양보다는 본인과 공적제도 중심의 노후 준비를 지향하는 인식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약 4분의 1 이상이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세대 간 부양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가족 부양에 대한 전통적 인식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0〉 현재 경제활동 세대의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

(단위: %)	
구분	비율
본인 스스로 마련	70.6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1.8
자녀가 마련	27.6
기타	0.0
합계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5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의 만족

이번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경제 상태, 가족과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 분포와 평균값을 제시하고, 성별·연령·거주지역·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먼저,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5점 만점 기준 평균은 3.23점으로 ‘보통(3점)’ 수준을 소폭 상회하였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많고, ‘만족’이 32.3%, ‘매우 만족’이 1.0%였다. 반면 ‘불만족’은 10.3%, ‘매우 불만족’은 0.6%였으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보통·만족·매우 만족)이 약 89.1%를 차지해, 대체로 삶에 대한 평가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이 3.21점, 여성은 3.24점으로, 여성 수급자의 삶 전반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와 70~79세 집단의 평균이 각각 3.29점으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3.0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3.25점, 중소도시 3.21점, 농어촌 3.18점으로 나타났고,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의 평균이 3.31점으로 가장 높으며,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3.27점, 노인 단독 가구 3.17점 순으로 나타나, 부부 동거 가구의 삶 전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Ⅲ-41〉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삶 전반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6	10.3	55.8	32.3	1.0	100.0	3.23
성별	남성	0.6	11.0	55.8	31.9	0.7	100.0	3.21
	여성	0.6	9.8	55.8	32.6	1.2	100.0	3.24
연령대	65~69세	0.0	8.5	54.4	36.2	0.8	100.0	3.29
	70~79세	0.4	8.9	53.4	35.6	1.7	100.0	3.29
	80세 이상	1.6	14.1	60.7	23.5	0.2	100.0	3.07
거주지역	대도시	0.3	10.2	54.6	34.1	0.8	100.0	3.25
	중소도시	1.1	10.4	56.2	30.6	1.7	100.0	3.21
	농어촌	0.4	10.3	59.9	29.3	0.0	100.0	3.18
가구 형태	노인단독	0.8	12.3	57.1	28.5	1.3	100.0	3.17
	노인부부	0.5	8.0	51.8	38.9	0.7	100.0	3.31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7.0	59.1	33.5	0.4	100.0	3.2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2.96점으로, '보통(3점)'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응답 분포를 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35.2%, '만족'이 30.7%, '매우 만족'이 1.8%로, 보통 이상이 약 67.7%를 차지하지만, '불만족'(25.9%)과 '매우 불만족'(6.4%)도 총 32.3%에 달해, 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비율도 상당한 편이다.

성별로는 남성 평균 3.02점, 여성 평균 2.92점으로 여성의 건강 만족도가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3.23점, 70~79세 3.03점, 80세 이상 2.56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3.00점, 중소도시 2.99점, 농어촌 2.71점으로, 농어촌 거주 수급자의 건강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 3.10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95점, 노인 단독 가구

2.89점으로 나타나, 독거 노인의 건강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2〉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신의 건강 상태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6.4	25.9	35.2	30.7	1.8	100.0	2.96
성별	남성	5.8	24.1	35.0	32.8	2.4	100.0	3.02
	여성	6.8	27.1	35.4	29.3	1.5	100.0	2.92
연령대	65~69세	4.1	16.2	34.0	43.4	2.2	100.0	3.23
	70~79세	4.7	23.1	38.0	32.5	1.8	100.0	3.03
	80세 이상	11.1	39.9	32.3	15.1	1.6	100.0	2.56
거주지역	대도시	6.0	25.1	33.6	33.8	1.5	100.0	3.00
	중소도시	5.8	25.2	36.4	29.9	2.7	100.0	2.99
	농어촌	9.5	31.2	39.0	19.5	0.8	100.0	2.71
가구 형태	노인단독	7.2	28.2	35.2	27.3	2.0	100.0	2.89
	노인부부	4.0	23.8	32.6	37.8	1.8	100.0	3.1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7	20.9	40.8	29.5	1.1	100.0	2.95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63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분포를 보면, '매우 불만족' 7.4%, '불만족' 38.0%로 불만족 계층이 45.4%에 달하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1.0%, '만족' 11.7%, '매우 만족' 2.0%였다. 즉, 경제 상태에 대해 부정적 평가(매우 불만족·불만족)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만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앞선 제4절의 내용과 연결지어 해석한다면, 노후 준비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현재 경제 상태의 낮은 만족도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과거보다 자녀 등을 통한 사적 이전의 비중이 작아짐과 동시에 본인의 노후 준비 중요·필요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충분한 노후 준비가 경제 상태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후 준비를 둘러싼 철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남성 2.65점, 여성 2.62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 2.71점, 70~79세 2.69점, 80세 이상 2.45점으로, 고령층일수록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대도시 2.66점, 중소도시 2.62점, 농어촌 2.51점으로, 농어촌 수급자의 경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의 평균이 2.69점으로 가장 높고,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2.65점, 노인 단독 가구 2.59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신의 경제 상태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7.4	38.0	41.0	11.7	2.0	100.0	2.63
성별	남성	7.2	37.7	40.7	12.1	2.3	100.0	2.65
	여성	7.5	38.2	41.1	11.4	1.8	100.0	2.62
연령대	65~69세	6.0	35.5	41.4	15.5	1.7	100.0	2.71
	70~79세	6.2	36.0	42.7	12.6	2.4	100.0	2.69
	80세 이상	10.6	43.4	37.9	6.5	1.7	100.0	2.45
거주지역	대도시	6.8	35.1	43.7	14.0	0.5	100.0	2.66
	중소도시	8.7	38.9	38.5	9.4	4.5	100.0	2.62
	농어촌	6.1	47.8	36.3	8.6	1.2	100.0	2.51
가구 형태	노인단독	8.4	40.4	38.0	10.5	2.8	100.0	2.59
	노인부부	5.7	36.2	42.3	14.6	1.2	100.0	2.69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0	31.9	50.1	10.7	0.3	100.0	2.65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1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응답 분포를 보면 '보통' 32.1%, '만족' 57.0%,

‘매우 만족’ 8.3%로, 보통 이상이 96% 이상을 차지하며, 불만족 응답은 극히 드물었다. 성별·연령·거주지역·가구 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배우자 관계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4〉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3	2.3	32.1	57.0	8.3	100.0	3.71
성별	남성	0.2	1.7	30.9	56.9	10.3	100.0	3.75
	여성	0.4	3.3	34.1	57.3	5.0	100.0	3.63
연령대	65~69세	0.4	1.8	31.7	55.2	11.0	100.0	3.75
	70~79세	0.0	2.9	30.6	59.5	7.0	100.0	3.71
	80세 이상	0.8	1.6	37.4	54.4	5.7	100.0	3.63
거주 지역	대도시	0.0	1.8	27.4	60.4	10.4	100.0	3.79
	중소도시	0.3	2.2	33.9	56.4	7.1	100.0	3.68
	농어촌	1.1	4.5	46.8	44.3	3.2	100.0	3.44
가구 형태	노인단독	-	-	-	-	-	-	-
	노인부부	0.3	2.4	30.9	58.9	7.5	100.0	3.71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1.9	36.6	50.4	11.2	100.0	3.71

주: 본 문항에는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59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5점으로, 배우자 관계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통’ 20.6%, ‘만족’ 66.1%, ‘매우 만족’ 10.7%로, 보통 이상이 96% 이상을 차지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다소 높고, 연령·지역·가구 형태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구·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평균 3.69점으로 ‘보통’을 상당폭 상회한다. ‘보통’ 29.8%, ‘만족’ 62.1%, ‘매우 만족’ 5.1%로, 보통 이상이

92.3%에 달하며, 불만족 응답은 3.1% 수준에 그친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가족뿐 아니라 친구·이웃과도 비교적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45〉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3	2.3	20.6	66.1	10.7	100.0	3.85
성별	남성	0.1	2.7	25.8	63.1	8.2	100.0	3.77
	여성	0.3	2.1	17.1	68.1	12.4	100.0	3.90
연령대	65~69세	0.2	2.8	18.4	66.3	12.3	100.0	3.88
	70~79세	0.4	2.2	20.0	67.7	9.7	100.0	3.84
	80세 이상	0.2	2.0	23.7	63.5	10.6	100.0	3.82
거주지역	대도시	0.2	2.3	23.2	62.0	12.2	100.0	3.84
	중소도시	0.4	1.6	18.2	72.1	7.7	100.0	3.85
	농어촌	0.0	4.5	16.2	66.1	13.2	100.0	3.88
가구 형태	노인단독	0.5	3.4	23.8	62.4	9.9	100.0	3.78
	노인부부	0.0	0.5	15.2	74.8	9.5	100.0	3.9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1.9	19.5	62.0	16.7	100.0	3.93

주: 본 문항에는 현재 자녀가 있는 수급자 1,948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II -46〉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친구, 이웃과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1	3.0	29.8	62.1	5.1	100.0	3.69
성별	남성	0.1	3.6	31.8	60.8	3.7	100.0	3.64
	여성	0.0	2.6	28.4	63.0	6.0	100.0	3.72
연령대	65~69세	0.2	1.9	27.7	66.2	4.1	100.0	3.72
	70~79세	0.0	3.4	26.2	64.7	5.8	100.0	3.73
	80세 이상	0.0	3.6	37.1	54.2	5.0	100.0	3.61
거주지역	대도시	0.0	3.2	30.1	62.2	4.4	100.0	3.68
	중소도시	0.0	1.3	29.3	64.2	5.3	100.0	3.73
	농어촌	0.4	7.0	29.5	55.8	7.3	100.0	3.63
가구 형태	노인단독	0.1	3.0	31.2	59.7	5.9	100.0	3.68
	노인부부	0.0	3.2	24.4	69.6	2.9	100.0	3.72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2.6	35.2	55.8	6.4	100.0	3.6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9점으로, ‘보통’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였다. ‘보통’ 53.9%, ‘만족’ 25.2%, ‘매우 만족’ 1.9%로 보통 이상이 81.0%를 차지하는 반면, ‘불만족’ 17.5%, ‘매우 불만족’ 1.5%로 불만족 비율도 적지 않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성 3.07점, 여성 3.09점으로 큰 차이가 없고, 연령대별로는 65~69세 3.13점, 70~79세 3.16점, 80세 이상 2.94점으로, 80세 이상 집단에서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 3.17점, 중소도시 3.11점, 대도시 3.05점 순으로, 농어촌 수급자의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 3.13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 3.08점, 노인 단독 가구 3.06점 순이었다.

〈표 Ⅲ-47〉 기초연금 수급자 삶의 만족도: 사회, 여가, 문화활동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1.5	17.5	53.9	25.2	1.9	100.0	3.09
성별	남성	1.1	19.1	52.9	25.1	1.7	100.0	3.07
	여성	1.7	16.4	54.6	25.3	2.0	100.0	3.09
연령대	65~69세	0.7	16.3	53.1	29.3	0.7	100.0	3.13
	70~79세	1.2	14.8	54.2	26.6	3.1	100.0	3.16
	80세 이상	2.6	22.8	54.2	18.9	1.4	100.0	2.94
거주지역	대도시	1.0	19.5	54.6	23.7	1.3	100.0	3.05
	중소도시	1.8	16.6	53.3	25.5	2.8	100.0	3.11
	농어촌	2.5	11.9	52.9	31.0	1.7	100.0	3.17
가구 형태	노인단독	1.8	19.2	52.4	24.2	2.5	100.0	3.06
	노인부부	1.2	15.4	54.3	27.6	1.5	100.0	3.13
	(손)자녀 동거	0.8	15.3	59.4	24.2	0.3	100.0	3.08
	및 기타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6절 소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비지출은 식비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주거 관련 비용(주거·광열수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이 뒤를 잇는다. 이는 수급자의 소비가 기본 생계와 필수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수지 측면에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상당 비중을 차지 하며, 월평균으로는 흑자가 나타나지만, 지난 1년 동안 적자를 경험한 수급자도 일정 비율 존재한다. 적자 발생 시에는 주로 저축 등 자산을 줄이거나(해약 포함), 가족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가계충격이 발생할 경우 완충장치가 충분히 두텁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급자가 인식하는 최소·적정 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기초연금의 주요

사용처가 식비(1순위), 주거 관련 비용(2순위), 보건의료비·외식비(3순위)로 나타난 점은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생계비와 주거·의료비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즉, ‘여유 소비’보다는 ‘필수 지출 보전’ 성격이 강함).

주거·자산 측면에서는 자가 거주 비중이 높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크다. 차량은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보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가 자산은 아닌 구간에 집중된다. 실물·금융재산과 부채를 종합하면, 수급자 집단의 자산구성은 주거 중심의 실물자산 비중이 크고, 금융자산과 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생활비 충격 대응에서 현금성 자원 동원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시사한다.

경제활동을 보면, 조사 시점 현재 일하는 수급자가 상당수이며, 종사 직종은 단순 노무·서비스 및 공공성 일자리가 중심이다. 고용형태는 임시·일용 중심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일자리의 안정성과 보상 수준에 대한 취약성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자리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불만족 사유로는 낮은 급여와 불안정성이 주로 지적되었다.

사회활동은 사교·취미·종교 활동이 중심이며, 기초연금 인상이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과반을 차지한다(특히, 농어촌·독거 노인에서 체감이 큼). 다만 사회활동 미참여 이유로 건강 문제와 비용 부담이 크게 나타나, 단순한 소득 지원만으로는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이동·활동비 부담 완화 같은 제약요인 대응이 함께 중요함을 보여준다.

노후 준비는 다수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 수단은 공적연금과 저축성 자산이 중심이다. 동시에 노후생활비는 개인 책임 인식이 우세하여,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인·제도 중심의 노후관이 두드러진다.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지만, 특히 경제 상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가족·사회관계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기본 지출(생계·주거·의료)을 지지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사회참여·노후 준비 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여성, 노인 단독가구, 농어촌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향후 논의에서는 취약집단의 생활비 충격 대응, 건강·비용 장벽 완화,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제4장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과 평가, 제도에 대한 요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IV.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및 인식

제1절 기초연금의 도움 정도 및 수급액 만족도

1.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

이 절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전반적인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은 4.31점으로 준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여성(4.36)이 남성(4.24)보다 약간 더 높은 도움 정도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4.41) 고령층의 점수가 가장 높고, 65~69세(4.21)가 가장 낮아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의 도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4.44)와 농어촌(4.49)이 대도시(4.18)보다 평균점수가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단독 가구의 평균이 가장 높고, 노인부부 가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응답 분포를 보면, 전체 수급자 중 ‘보통(3점)’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8.2%이고, 특히 ‘도움이 되는 편(41.9%)’과 ‘매우 도움이 됨(45.4%)’이 응답의 상당부분 차지해,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전반적인 생활 도움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이 안되는 편	보통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합계	도움 정도 평균(5점)
전체		0.0	1.7	10.9	41.9	45.4	100.0	4.31
성별	남성	0.1	2.6	12.5	43.0	41.7	100.0	4.24
	여성	0.0	1.1	9.7	41.2	48.0	100.0	4.36
연령대	65~69세	0.2	1.7	12.9	47.7	37.6	100.0	4.21
	70~79세	0.0	2.0	10.9	41.0	46.1	100.0	4.31
	80세 이상	0.0	1.2	8.7	37.4	52.6	100.0	4.41
거주 지역	대도시	0.0	2.0	15.9	44.3	37.8	100.0	4.18
	중소도시	0.1	1.4	6.0	38.8	53.6	100.0	4.44
	농어촌	0.0	1.2	3.2	40.5	55.0	100.0	4.49
가구 형태	노인단독	0.0	1.1	9.9	40.5	48.4	100.0	4.36
	노인부부	0.0	2.7	11.1	41.8	44.4	100.0	4.28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4	1.9	14.3	48.1	35.4	100.0	4.1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지를 질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그런 편이다’가 52.9%로 약 절반 정도, ‘보통이다’가 35.0%로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보통 이상 응답 비율은 90%를 상회해, 다수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소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과 농어촌 거주자, 노인단독 가구에서 보통 이상 응답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2〉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음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2	7.2	35.0	52.9	4.7	100.0
성별	남성	0.1	8.9	35.6	51.0	4.4	100.0
	여성	0.3	6.1	34.6	54.2	4.8	100.0
연령대	65~69세	0.5	8.4	35.4	51.6	4.1	100.0
	70~79세	0.1	7.7	35.1	52.3	4.7	100.0
	80세 이상	0.0	5.4	34.4	55.2	5.1	100.0
거주지역	대도시	0.2	9.1	30.9	52.8	7.0	100.0
	중소도시	0.3	5.3	39.2	52.9	2.3	100.0
	농어촌	0.0	4.9	40.2	53.7	1.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0.2	6.5	33.0	55.3	5.0	100.0
	노인부부	0.3	9.2	35.7	49.5	5.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6.2	41.5	50.5	1.8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의료 이용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 '그런 편이다'가 50.6%로 절반을 넘고, '매우 그렇다'를 포함한 보통 이상 응답이 전체의 9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80세 이상, 농어촌 거주자,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이 병원비·교통비 등 의료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음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3	6.0	25.6	50.6	17.5	100.0
성별	남성	0.2	7.7	27.0	48.9	16.1	100.0
	여성	0.4	4.8	24.5	51.8	18.4	100.0
연령대	65~69세	0.3	6.7	28.4	49.5	15.0	100.0
	70~79세	0.4	6.3	25.4	50.6	17.4	100.0
	80세 이상	0.3	4.9	22.9	51.7	20.2	100.0
거주지역	대도시	0.5	6.5	29.4	50.8	12.8	100.0
	중소도시	0.1	5.0	20.8	50.1	24.0	100.0
	농어촌	0.4	6.5	22.8	51.2	19.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0.3	5.3	25.3	50.7	18.3	100.0
	노인부부	0.5	7.9	24.5	47.0	20.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4.8	29.0	57.9	8.4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은 편이다(39.1)’와 ‘보통이다(38.0%)’를 합친 응답 비율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했다. 기초연금이 미래 불안감을 반드시 해소해 준다고 보기보다는, 불안 완화 효과와 여전히 남아 있는 걱정이 혼재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어촌 거주자(54.5%)와 노인부부(54.9%) 가구의 경우, ‘보통 이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집단에서는 기초연금이 미래 불안과 관련하여 “크게 줄어들지도, 그렇다고 크게 증가하지도 않은 중간적 상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0.8%)’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IV-4〉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짐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8.4	39.1	38.0	12.7	1.8	100.0
성별	남성	8.0	37.8	37.6	14.0	2.6	100.0
	여성	8.6	39.9	38.3	11.8	1.3	100.0
연령대	65~69세	5.9	41.5	38.8	12.2	1.7	100.0
	70~79세	8.7	38.0	37.9	13.3	2.1	100.0
	80세 이상	10.4	38.2	37.4	12.4	1.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0.8	34.9	38.4	14.5	1.4	100.0
	중소도시	6.6	44.2	35.2	11.3	2.8	100.0
	농어촌	3.2	42.4	44.7	9.0	0.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9.0	40.0	37.0	11.6	2.4	100.0
	노인부부	7.7	37.4	40.3	13.4	1.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0	39.1	37.4	15.8	0.7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 이후 친목 모임 증가나 여가시간 확대를 체감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44.3%)'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그런 편이다(35.2%)' 뒤따르는 구조를 보인다. 보통 이상 응답 비율은 80%를 상회하지만, '그렇지 않은 편이다(15.8%)'도 일정 비중 존재해, 연금 인상이 여가활동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보통이다(50.1%)'와 '그런 편이다(42.5%)'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0.8%)'는 응답은 거의 없는 수준인 반면,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18.6%)'의 부정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5〉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친목 모임의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가 시간이 많아짐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1.8	15.8	44.3	35.2	2.8	100.0
성별	남성	2.6	17.0	45.4	31.8	3.3	100.0
	여성	1.4	15.0	43.6	37.6	2.5	100.0
연령대	65~69세	1.7	16.2	48.9	31.5	1.7	100.0
	70~79세	2.0	14.5	43.8	36.2	3.6	100.0
	80세 이상	1.7	17.2	40.4	37.7	3.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3	18.5	40.2	35.3	3.7	100.0
	중소도시	1.6	15.3	48.5	32.5	2.1	100.0
	농어촌	0.8	5.3	50.1	42.5	1.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6	16.3	42.0	36.4	3.7	100.0
	노인부부	2.5	13.6	47.6	33.9	2.4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5	18.6	46.4	33.2	0.4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 이후 가족·지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당당함'이 달라졌는지를 물었다.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다(41.5%)'와 '보통이다(39.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통 이상이 87.5%에 이르는 등, 경제적 기반이 생김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심리적 위축이 다소 완화된 효과가 확인된다.

다만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도 10% 이상 존재하여, 기초연금에 관계의 위계나 갈등 구조를 전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한계 역시 드러난다. 80세 이상(13.5%), 중소도시(14.3%),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15.4%)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및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지역·관계망 특성이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짐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1.2	11.2	39.6	41.5	6.4	100.0
성별	남성	1.8	11.8	41.6	38.2	6.6	100.0
	여성	0.8	10.9	38.3	43.8	6.3	100.0
연령대	65~69세	1.0	11.8	41.8	40.4	5.0	100.0
	70~79세	1.3	10.1	37.9	43.7	7.0	100.0
	80세 이상	1.2	12.3	39.9	39.4	7.2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0	11.9	40.1	38.7	8.3	100.0
	중소도시	1.7	12.6	39.4	41.7	4.6	100.0
	농어촌	0.4	4.6	38.2	53.1	3.7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1	11.7	38.7	41.9	6.6	100.0
	노인부부	1.7	8.7	38.5	44.1	7.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4	15.0	45.8	34.5	4.5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2.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이번에는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전체 평균은 3.83점으로 나타났으며, '만족(4점)' 응답이 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우 만족(5점)' 응답 비중도 12.7%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보통'과 '만족'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어, 95.2%의 응답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상태임을 반영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도(3.88점)가 남성(3.77점)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80세 이상(3.92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65~69세(3.74점)가 가장 낮은 편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중소도시(3.94점)와 농어촌(3.85점)의 만족도가

대도시(3.75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단독 가구(3.89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노인부부 가구(3.75점)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IV-7〉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5	4.4	19.3	63.2	12.7	100.0	3.83
성별	남성	0.7	6.0	21.1	60.3	11.9	100.0	3.77
	여성	0.3	3.3	18.0	65.1	13.2	100.0	3.88
연령대	65~69세	0.5	5.9	22.1	61.8	9.7	100.0	3.74
	70~79세	0.2	4.4	19.5	63.4	12.4	100.0	3.83
	80세 이상	0.9	2.9	16.0	64.2	16.0	100.0	3.92
거주지역	대도시	0.8	5.4	25.3	55.1	13.4	100.0	3.75
	중소도시	0.2	3.9	12.1	69.1	14.8	100.0	3.94
	농어촌	0.4	1.6	13.8	80.9	3.3	100.0	3.85
가구 형태	노인단독	0.4	2.9	18.4	63.9	14.4	100.0	3.89
	노인부부	0.5	7.2	19.2	63.5	9.6	100.0	3.75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7	4.4	23.1	59.5	12.2	100.0	3.7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2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이 절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수급자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를 여러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생활 여유, 가족·타인과의 관계, 국가·세대 간 인식 등 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기초연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95.9%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런 편이다’ 응답이 62.89%로 상당 범위를 포함한다. 거주지역 중에서는 농어촌에서 ‘그런 편이다(77.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도시(57.7%)에서, 가구 형태에서는 (손)자녀 동거 및 기타(59.1%)에서 긍정 응답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이후 자녀나 친인척에게 경제적 도움을 덜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4.4%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초연금이 실제 금액 규모와는 별개로,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원’으로 심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70~79세에서 ‘매우 그렇다(12.3%)’ 비율이 높고, 노인단독 가구에서도 12.8%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거·부양 관계 맥락에서 기초연금이 “미안함·부담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8〉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2	4.0	22.5	62.9	10.5	100.0
성별	남성	0.2	5.5	24.4	61.1	8.7	100.0
	여성	0.1	3.0	21.1	64.1	11.8	100.0
연령대	65~69세	0.3	4.8	22.4	63.3	9.1	100.0
	70~79세	0.1	4.2	23.4	61.1	11.1	100.0
	80세 이상	0.0	2.8	21.2	64.9	11.2	100.0
거주지역	대도시	0.3	4.5	23.6	57.7	13.9	100.0
	중소도시	0.0	4.0	22.8	65.6	7.6	100.0
	농어촌	0.0	1.7	16.5	77.3	4.5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0.1	3.3	21.9	63.0	11.7	100.0
	노인부부	0.3	5.2	21.6	64.4	8.5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4.1	26.9	59.1	10.0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표 IV-9〉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자녀,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2	5.4	28.4	55.0	11.0	100.0
성별	남성	0.0	7.0	31.0	52.0	10.0	100.0
	여성	0.3	4.3	26.6	57.0	11.8	100.0
연령대	65~69세	0.5	7.2	30.3	52.1	9.9	100.0
	70~79세	0.0	4.4	27.0	56.3	12.3	100.0
	80세 이상	0.2	5.0	28.4	55.9	10.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0.2	6.2	30.6	54.5	8.6	100.0
	중소도시	0.1	4.6	26.4	53.4	15.5	100.0
	농어촌	0.4	4.5	24.5	61.7	9.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0.2	4.9	27.4	54.7	12.8	100.0
	노인부부	0.3	6.0	27.2	56.7	9.8	100.0
	(손)자녀 동거	0.0	6.0	35.1	52.4	6.5	100.0
	및 기타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국가가 노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보통 이상 응답이 95.6%에 이르렀다. '그런 편이다(47.7%)'가 과반을 차지하고, '매우 그렇다'도 18.8%를 차지하였다. 특징적으로는 연령대별 '보통이다' 이상의 응답의 차이는 크지 않고, 중소도시(23.1%)·농어촌(21.6%) 거주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단독(19.6%)과 (손)자녀 동거 및 기타(16.6%)의 '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10〉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0.5	4.0	29.1	47.7	18.8	100.0
성별	남성	0.6	5.1	30.7	46.1	17.5	100.0
	여성	0.4	3.2	28.0	48.7	19.6	100.0
연령대	65~69세	0.5	3.8	31.5	47.1	17.2	100.0
	70~79세	0.4	4.0	29.1	48.5	18.0	100.0
	80세 이상	0.7	4.1	26.6	47.0	21.6	100.0
거주지역	대도시	0.9	5.6	30.5	47.9	15.2	100.0
	중소도시	0.1	2.6	26.6	47.6	23.1	100.0
	농어촌	0.0	1.2	30.0	47.1	21.6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0.5	3.7	28.9	47.2	19.6	100.0
	노인부부	0.7	4.9	28.4	49.5	16.6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3.3	31.3	45.5	19.9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점)' 이상의 비중이 91.4%를 차지하였는데, '그런 편이다(4점)'가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31.6%, '매우 그렇다(5점)'가 24.2%,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가 7.4%, '전혀 그렇지 않다(1점)'가 1.3%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후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응답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중은 중소도시 거주자가 43.0%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중은 농어촌 거주자가 38.2%로 가장 높았다.

〈표 IV-1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후세대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1.3	7.4	31.6	35.6	24.2	100.0
성별	남성	1.2	6.6	32.3	37.0	22.8	100.0
	여성	1.3	7.9	31.1	34.6	25.1	100.0
연령대	65~69세	0.9	8.1	32.2	35.2	23.6	100.0
	70~79세	1.6	6.3	32.3	36.1	23.7	100.0
	80세 이상	1.2	8.3	29.9	35.2	25.4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0	10.7	35.6	31.9	19.9	100.0
	중소도시	0.6	4.3	26.4	43.0	25.7	100.0
	농어촌	0.0	2.1	29.6	30.1	38.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7	7.8	30.7	38.0	21.9	100.0
	노인부부	0.8	6.8	29.5	33.4	29.5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4	7.2	40.0	30.2	22.3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2. 적정 기초연금액 수준

수급자들에게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현재 기준연금액 수준(34만 2천 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9.9%였고, 월 40만 원과 월 50만 원을 선호하는 응답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40만 원 응답이 4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월 50만 원(2.00%), 월 45만 원 응답 비중(1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인상된 40만~50만 원 사이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월 40만 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고, 대도시에서는 월 5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이 25.7%로 높다.

〈표 IV-12〉 적정 기초연금액(1인당 기준연금액)에 대한 생각

(단위: %)

구분		현재 수준 (34만2천원)	월40만원	월45만원	월50만원	합계
전체		19.9	47.7	12.4	20.0	100.0
성별	남성	21.4	46.0	11.7	21.0	100.0
	여성	18.9	48.8	13.0	19.3	100.0
연령대	65~69세	20.7	44.7	12.2	22.4	100.0
	70~79세	21.1	47.9	11.7	19.3	100.0
	80세 이상	17.4	50.4	13.8	18.4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1.6	41.2	11.4	25.7	100.0
	중소도시	21.3	56.3	8.1	14.3	100.0
	농어촌	8.9	50.5	29.1	11.4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8.8	49.7	13.4	18.2	100.0
	노인부부	21.0	44.8	10.5	23.7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2.4	45.6	12.8	19.1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3절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1.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

이 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제도 전반과 관련 혜택·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수급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습득하게 된 경로와 이와 관련된 상담여부, 기초연금에 탈락한 경험 여부 등을 질의하여 제도를 운용하는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이해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의 소득인정범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동시수급자의 연계감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변경내용,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이나 신변의 변화에 대한 신고,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 할인, 기초연금 탈락자가 수급을 위한 재신청, 거동불편자 대상의 찾아뵙는 서비스 등에 8가지 문항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요건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수급대상여부를 결정하므로 국민연금 또한 소득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를 조사대상자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6.9%는 알고있음, 13.1%는 모름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성은 90.5%, 여성은 84.5%로 남성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는 65~69세(91.6%), 70~79세(87.7%), 80세 이상(81.1%) 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지역은 농어촌이 90.3%, 중소도시가 88.3%, 대도시가 85.3% 순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구형태의 경우 노인부부가 91.1%로 가장 높고 (손)자녀 동거 및 기타가 89.0%, 노인단독이 84.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포함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86.9	13.1	100.0
성별	남성	90.5	9.5	100.0
	여성	84.5	15.5	100.0
연령대	65~69세	91.6	8.4	100.0
	70~79세	87.7	12.3	100.0
	80세 이상	81.1	18.9	100.0
거주지역	대도시	85.3	14.7	100.0
	중소도시	88.3	11.7	100.0
	농어촌	90.3	9.7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84.3	15.7	100.0
	노인부부	91.1	8.9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89.0	11.0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관련된 질문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알고 있는 경우는 83.3%, 모르는 경우는 16.7%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의 응답자들의 경우,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고, 가구 형태로는 노인부부가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90.1%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비중이 적으면 80%대, 많으면 90%대에 도달한다는 것은 최소 10%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급자가 연계감액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향후 제도 안내와 정보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4〉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금액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83.3	16.7	100.0
성별	남성	87.0	13.0	100.0
	여성	80.8	19.2	100.0
연령대	65~69세	89.2	10.8	100.0
	70~79세	83.5	16.5	100.0
	80세 이상	77.0	23.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82.2	17.8	100.0
	중소도시	83.7	16.3	100.0
	농어촌	87.0	13.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80.0	20.0	100.0
	노인부부	90.1	9.9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81.8	18.2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준인 선정기준액이나 기준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로는 73.7%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6.3%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65~69세 응답자들의 경우,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81.4%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은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이 38.7%로 가장 높았다. 즉 조사 대상자의 3/4 정도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으나, 여전히 약 1/4은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5〉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변동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73.7	26.3	100.0
성별	남성	78.1	21.9	100.0
	여성	70.8	29.2	100.0
연령대	65~69세	81.4	18.6	100.0
	70~79세	76.9	23.1	100.0
	80세 이상	61.3	38.7	100.0
거주지역	대도시	74.0	26.0	100.0
	중소도시	74.5	25.5	100.0
	농어촌	70.5	29.5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69.5	30.5	100.0
	노인부부	80.5	19.5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6.6	23.4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제도 변경이나 다양한 사유로 추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이다. 조사 결과, 38.5%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1.5%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농어촌 거주자들의 경우,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49.8%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이 71.3%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보다 해당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IV-16〉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38.5	61.5	100.0
성별	남성	43.6	56.4	100.0
	여성	34.9	65.1	100.0
연령대	65~69세	48.0	52.0	100.0
	70~79세	38.4	61.6	100.0
	80세 이상	28.7	71.3	100.0
거주지역	대도시	31.9	68.1	100.0
	중소도시	44.3	55.7	100.0
	농어촌	49.8	50.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34.8	65.2	100.0
	노인부부	44.3	55.7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41.3	58.7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의 변화, 또는 가족 관계의 변화(혼인·사별·이혼 등), 장기 해외체류 등 신변의 변화가 있을 때 시·군·구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로는 26.0%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4.0%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에서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2/3 이상이 수급권에 영향을 주는 수급자 상황 변화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표 IV-17〉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화 및 가족관계 및 신변의 변화에 대한
자진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26.0	74.0	100.0
성별	남성	29.8	70.2	100.0
	여성	23.4	76.6	100.0
연령대	65~69세	32.0	68.0	100.0
	70~79세	26.5	73.5	100.0
	80세 이상	19.1	80.9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5.2	74.8	100.0
	중소도시	26.0	74.0	100.0
	농어촌	29.2	70.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2.0	78.0	100.0
	노인부부	29.2	70.8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35.5	64.5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통신(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55.9%가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4.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노인부부 가구가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62.3%로 가장 높았고, 80세 이상의 응답자는 ‘모름’으로 응답한 비중이 53.5%로 가장 높았다.

〈표 IV-18〉 기초연금 수급시 이동통신 요금 감면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55.9	44.1	100.0
성별	남성	59.0	41.0	100.0
	여성	53.7	46.3	100.0
연령대	65~69세	61.8	38.2	100.0
	70~79세	58.1	41.9	100.0
	80세 이상	46.5	53.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52.3	47.7	100.0
	중소도시	60.8	39.2	100.0
	농어촌	57.2	42.8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52.0	48.0	100.0
	노인부부	62.3	37.7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8.1	41.9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거동불편자에 대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29.6%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0.4%는 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응답자 대상이 거동불편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알고 있음'의 응답 비중이 1/3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실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안내·연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알고있음'을 응답한 비중이 41.5%로 가장 높았고, '모름'으로 응답한 대상은 대도시 거주자가 73.7%로 가장 높았다.

〈표 IV-19〉 거동불편자에 대한 ‘찾아뵙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합계
전체		29.6	70.4	100.0
성별	남성	31.4	68.6	100.0
	여성	28.3	71.7	100.0
연령대	65~69세	29.8	70.2	100.0
	70~79세	30.0	70.0	100.0
	80세 이상	28.9	71.1	100.0
거주지역	대도시	26.3	73.7	100.0
	중소도시	30.3	69.7	100.0
	농어촌	41.5	58.5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6.8	73.2	100.0
	노인부부	32.8	67.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34.3	65.7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2.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 습득 경로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제도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보습득 경로 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7.6%가 ‘주변인(가족·친구)’을 통해서 기초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은 25.5%,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은 22.9%,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은 18.5% 순으로 응답 비중의 대부분(94.5%)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텔레비전 또는 신문’은 5.1%,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은 0.3%, ‘인터넷’은 0.2%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주로 공식 기관의 안내문·방문·전화와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전달 방식과 대면 접촉을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 비율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20〉 기초연금 제도 관련 정보 습득 경로(1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22.9	25.5	18.5	27.6	5.1	0.2	0.3	100.0
성별	남성	25.0	26.6	18.6	23.6	5.2	0.6	0.4	100.0
	여성	21.4	24.7	18.4	30.3	5.0	0.0	0.2	100.0
연령대	65~69세	22.7	29.5	18.6	24.5	4.3	0.5	0.0	100.0
	70~79세	25.2	25.6	17.9	25.2	5.4	0.2	0.6	100.0
	80세 이상	19.7	21.1	19.2	34.4	5.5	0.0	0.0	100.0
거주 지역	대도시	29.3	26.0	18.5	19.4	5.8	0.5	0.4	100.0
	중소도시	12.7	25.3	20.6	36.0	5.3	0.0	0.1	100.0
	농어촌	24.5	23.5	12.1	38.7	1.2	0.0	0.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2.7	24.1	18.2	30.1	4.5	0.2	0.2	100.0
	노인부부	23.4	24.8	19.2	26.3	5.7	0.3	0.3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2.4	32.7	18.0	19.9	6.2	0.4	0.4	100.0

주: ①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②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 ③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④ 주변인(가족·친구), ⑤ TV 또는 신문, ⑥ 인터넷, ⑦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어느 경로로 받는 것이 제도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가장 선호하는 안내 수단은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이 34.2%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이 30.9%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역시 22.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변인(가족·친구), 텔레비전·신문, 현수막·전단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공식기관(주민센터, 공단)의 직접적인 대면·전화 상담이나 우편 안내문과 같은 '오프라인·문서 기반, 신뢰도 높은 채널'을 통해 정보를 받는 것을 선호하며, 인터넷이나 비공식적 경로(주변인 등)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1〉 기초연금 제도 관련 홍보 경로에 대한 선호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전체		22.2	30.9	34.2	7.8	3.2	0.5	1.1	0.1
성별	남성	23.1	32.9	32.5	5.6	4.2	0.4	1.1	0.2
	여성	21.5	29.6	35.4	9.3	2.6	0.6	1.1	0.0
연령대	65~69세	23.7	35.1	31.1	4.8	2.8	0.3	2.0	0.2
	70~79세	22.2	31.4	34.1	6.2	4.2	0.8	1.0	0.1
	80세 이상	20.6	25.8	37.6	13.2	2.3	0.2	0.3	0.0
거주 지역	대도시	25.1	31.3	30.3	6.5	4.9	0.9	1.0	0.1
	중소도시	16.2	34.8	37.8	7.6	1.7	0.0	1.7	0.1
	농어촌	26.8	18.0	40.7	14.1	0.4	0.0	0.0	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21.6	29.4	34.5	9.8	2.6	0.7	1.3	0.1
	노인부부	22.6	30.4	36.1	5.9	4.4	0.3	0.2	0.2
	(손)자녀 동거 및 기타	23.5	38.2	29.1	3.5	3.4	0.0	2.2	0.0

주: ①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② 자택으로 발송되어 온 안내문, ③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 ④ 주변인(가족·친구), ⑤ TV 또는 신문, ⑥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⑦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3. 기초연금 제도 관련 상담 경험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상담 경험 여부, 상담 만족도, 상담 경로 및 방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상담 경험 있음’이 41.7%, ‘경험 없음’이 58.3%로 나타나, 상담 경험 여부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와 70~79세에서 ‘경험 있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80세 이상에서는 ‘경험 없음’ 응답이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상담 이용 경험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기초연금 관련 상담 경험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41.7	58.3	100.0
성별	남성	43.0	57.0	100.0
	여성	40.8	59.2	100.0
연령대	65~69세	43.6	56.4	100.0
	70~79세	45.0	55.0	100.0
	80세 이상	34.7	65.3	100.0
거주지역	대도시	44.6	55.4	100.0
	중소도시	37.8	62.2	100.0
	농어촌	40.1	59.9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40.2	59.8	100.0
	노인부부	41.1	58.9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49.1	50.9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상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의한 결과, 전체 평균은 4.1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를 보면, ‘만족(4점)’이 57.4%, ‘매우 만족(5점)’이 29.9%를 차지했으며,

‘보통’을 포함한 3점 이상 응답 비율이 99.9%로 거의 전원이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불만족 이하 응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여성(4.21점)이 남성(4.11점)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았고, 연령대 별로는 80세 이상이 가장 높은 만족도(4.22점)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어촌이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4.25점)를 보였고,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단독 가구의 만족도(4.18점)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의 질이나 친절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3〉 상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만족도 평균(5점)
전체		0.0	0.1	12.6	57.4	29.9	100.0	4.17
성별	남성	0.0	0.3	14.6	58.9	26.1	100.0	4.11
	여성	0.0	0.0	11.2	56.2	32.6	100.0	4.21
연령대	65~69세	0.0	0.4	12.6	60.3	26.7	100.0	4.13
	70~79세	0.0	0.0	12.4	58.1	29.5	100.0	4.17
	80세 이상	0.0	0.0	13.1	52.1	34.8	100.0	4.22
거주 지역	대도시	0.0	0.2	14.9	52.1	32.8	100.0	4.17
	중소도시	0.0	0.0	10.5	65.6	23.9	100.0	4.13
	농어촌	0.0	0.0	7.3	60.1	32.6	100.0	4.25
가구 형태	노인단독	0.0	0.0	12.1	57.9	30.0	100.0	4.18
	노인부부	0.0	0.4	12.0	57.6	30.0	100.0	4.17
	(손)자녀 동거 및 기타	0.0	0.0	15.7	55.1	29.2	100.0	4.14

주: 본 문항은 기초연금 상담 경험이 있는 831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상담 방식 및 경로를 물어본 결과,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전체의 5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화 문의

(21.6%),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모두 방문한 경우(13.1%), 공단 지사만 방문한 경우(6.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 방문 상담 비율은 중소도시(65.7%)에서 가장 높았고, 전화 문의는 농어촌(48.2%)에서 가장 활발했으며, 대도시(16.2%) 거주자의 경우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를 모두 방문’한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는 상담 이용 시 주로 생활권 내 주민센터가 1차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4〉 상담 방법 및 경로

(단위: %)

구분		주민센터, 공단 지사 모두 방문	주민센터 방문	공단 지사 방문	전화 문의	합계
전체		13.1	59.1	6.3	21.6	100.0
성별	남성	13.2	59.0	7.6	20.2	100.0
	여성	13.0	59.1	5.3	22.5	100.0
연령대	65~69세	13.4	56.8	5.8	24.0	100.0
	70~79세	13.5	59.4	5.6	21.5	100.0
	80세 이상	11.9	61.6	8.0	18.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6.2	59.7	8.6	15.5	100.0
	중소도시	8.2	65.7	3.7	22.4	100.0
	농어촌	11.2	38.5	2.0	48.2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3.6	56.5	5.2	24.6	100.0
	노인부부	12.4	61.3	5.4	21.0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12.6	63.9	11.4	12.1	100.0

주: 본 문항은 기초연금 상담 경험이 있는 831명이 응답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4. 기초연금 제도 탈락 경험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제도 탈락 경험 및 탈락 후 재신청 경험을 살펴 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탈락 경험 있음 2.0%, 경험 없음 98.0%로, 대다수는 탈락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형태별로 보면, 탈락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손)자녀 동거 및 기타 가구(5.5%)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단독 가구(1.2%)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탈락 경험이 없는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IV-25〉 기초연금 탈락 경험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합계
전체		2.0	98.0	100.0
성별	남성	2.8	97.2	100.0
	여성	1.4	98.6	100.0
연령대	65~69세	1.9	98.1	100.0
	70~79세	2.4	97.6	100.0
	80세 이상	1.5	98.5	100.0
거주지역	대도시	1.6	98.4	100.0
	중소도시	2.7	97.3	100.0
	농어촌	1.6	98.4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1.2	98.8	100.0
	노인부부	1.8	98.2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5.5	94.5	10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탈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탈락 후 재신청 횟수를 묻은 결과, 1회 재신청이 약 80%로 가장 많고, 2회 재신청이 14.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탈락 후 다시 신청하여 자격을 회복한 사례는 대부분 1회

재신청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탈락 경험 자체가 전체의 2% 수준으로 매우 적고, 재신청 횟수에 응답한 인원도 40명 수준에 불과해, 세부 수치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참고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26〉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횟수

(단위: %)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전체		80.0	14.8	2.7	2.4	100.0
성별	남성	78.3	12.7	4.8	4.2	100.0
	여성	82.3	17.7	0.0	0.0	100.0
연령대	65~69세	100.0	0.0	0.0	0.0	100.0
	70~79세	70.0	19.8	5.4	4.8	100.0
	80세 이상	78.0	22.0	0.0	0.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76.3	23.7	0.0	0.0	100.0
	중소도시	89.1	5.2	5.7	0.0	100.0
	농어촌	52.9	23.2	0.0	24.0	100.0
가구 형태	노인단독	85.6	14.4	0.0	0.0	100.0
	노인부부	82.3	8.9	0.0	8.8	100.0
	(손)자녀 동거 및 기타	73.1	19.7	7.3	0.0	100.0

주: 본 문항은 과거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재신청하여 수급자격을 회복한 40명의 응답이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25),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인식된다. 특히 일상생활 유지, 의료 이용 부담 완화, 필요한 물품 구매, 여가 활용 등 생활 기능(기본생활·소비·의료·시간 활용)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매우 높았다. 반면 미래 불안 완화, 가족·타인 관계에서의 심리적 자신감처럼 정서적·관계적 영역에서는 응답이 엇갈려, 기초연금의 효과가 경제적·실질적 영역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심리·관계

영역에는 개인 상황이나 환경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 경향이 시사된다.

수급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매우 만족’이 두드러지기보다는 ‘보통~만족’에 응답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현 급여 수준이 기본 생활에 기여하지만 충분성(adequacy) 측면에서는 추가 개선 요구가 남아있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도 현 수준보다 인상된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도 인지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포함 여부, 연계감액 등 핵심적인 구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반면, 매년 변동되는 기준, 수급희망 이력관리, 각종 신고 의무, 부가적 혜택(요금감면, 재신청 가능 등)과 같은 세부 운영 규정·권리/의무 정보는 인지 수준이 낮거나 편차가 크다. 즉, 제도의 ‘뼈대’는 알고 있으나, 실제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권리(부가혜택)와 의무(신고) 관련 정보 전달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안내체계에서 정보의 우선 순위 재설계(핵심+운영 필수 정보의 패키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보습득 경로는 주변인, 안내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방문/전화 등 오프라인·대면/준대면 채널 중심이며, 인터넷 기반 정보 접근이나 홍보 선호는 매우 낮다. 상담 경험은 절반 수준으로 나뉘지만, 상담을 이용한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제도 이해·이행을 지원하는 실무 채널로서 상담 기능이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보 전달은 온라인 확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채널의 가독성·반복성·접근성 강화가 실효적일 가능성이 크다.

제도 탈락 경험은 매우 낮게 관찰되며, 재신청은 대체로 1회 수준이 많다. 다만 탈락 경험자 자체가 적어, 재신청 양상은 참고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제도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하다. 다만 급여 수준에 대한 인상 요구가 상당하고, 세부 제도(권리·의무·부가혜택) 인지 및 정보 전달은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급여의 체감 충분성과 함께 ‘알 권리/

신고 의무'가 동시에 전달되는 운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4장에서 이러한 양적 조사 결과를 정리한 데 이어, 5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기초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동시 수급의 이유와 목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제시한다.

V.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기초연금 인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중심으로

제1장과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국기초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를 둘러싼 질문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는 문현경 외(2023)가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에서 실시한 FGI와 유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이 다르다. 두 연구 모두 정책적 논란이 있어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를 둘러싼 동시 수급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2023년 연구는 기초연금을 미신청·미수급하는 국기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두 제도의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이해에 입각하면, 국기초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총액 관점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국기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는 문현경 외(2023)에서 대다수의 FGI 참여자가 지정한 바와 같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국기초·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정을 할 것일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슈를 인지하지 못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의 미수급과 수급 상황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욱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FGI를 통해 다소나마 탐색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가 2024년 9월 연금개혁안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국기초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하겠다고 밝힌바, 이번 FGI를 통해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동시 수급자들의 견해 또한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 기초연금 신청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

이번에 실시한 FGI는 국기초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기초의 총수급자(약 257만 명) 중에서 42.8%(약 110만 명)가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22).

이들에게 국민연금공단은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의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문현경 외, 2023: 118). 만 65세에 도달하기 두 달 전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가 우편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소득과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만 65세 도달 예정자가 포함된다. 국기초 수급자 역시 신청 안내의 대상자이다. 실제로 FGI에 참여한 모든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답변했다. 구체적인 경로는 언론에서 해당 지역의 통장,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그거 자주 접했으니까 그래서 아는 거지 뭐.” (A2)

“저도 주민센터에 통장이 추천을 해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어떻게 어떻게 준비 하라고 그래서 그 준비해 놓은 걸 갖다 주고,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A4)

“동사무소에 불일 보러 갔는데, 올해는 59년생부터 기초연금 나온다고 신청하라고 그러데, 동사무소 가니까.” (B2)

국기초의 소득인정액 체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국기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수급하더라도 수급 전의 총액과 비교하면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문현경 외(2023)에서 수행한 FGI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FGI에 참여한 사람 중 몇몇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와 미수급할 때를

비교하여 전자가 조금이라도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실제로 미수급과 수급 상황을 모두 경험하여 도출된 것인지, 아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그렇게 답변한 FGI 참여자는 이득의 근거로 기초연금에서 핸드폰 통신비 감면을 제공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는 객관적이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국기초 수급자 또한 해당 제도에서 통신비 감면을 받으며, 그 감면 정도는 기초연금 수급에 의한 감면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혹자는 두 제도의 동시 수급 이유가 FGI 참여자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FGI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답변의 차이를 보고자 했으나 의미 있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 설령, 발견할뿐더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두 차례의 FGI로는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의 FGI를 실시하더라도 여기서 발견한 양상을 전체 동시 수급자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수 없다.

한편, 국기초 내 기초연금액의 소득 산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국기초 급여액이 감소되는 것을 인지한 사람 또한 있었다.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답변한 것이다. 문현경 외(2023)가 실시한 FGI에서 신청 단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참여자가 원래 알고 있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알려줘서 알았다는 결과와 정반대의 내용이 나온 것이다.

“생계급여에서 80만 원으로 잡을게요. 그럼 그게 소득 산정액이 (기초연금) 34만 원이 들어간다고 거기에. 그러면 그 비율만큼 까지는 거야, 생계급여야. 그런데 두 개를 합쳐 보면 오히려 그게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죠.” (A2)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았는데.” (B4)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살아 있을 때 (기초연금을) 274,000원씩 받았어요, 양쪽에서. 우리 남편이 요양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올봄에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33만

얼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늘었나 그랬더니 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구청에다 걸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틀에 맞춰서 금액을 맞추는 거더라고요...(중략) 그래서 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부에서 4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우리는 이쪽(국기초)에서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 네모난 틀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죠.” (B5)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기초 수급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줬다 뺏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모든 참여자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복지 혜택이 자신에게 온전히 와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국기초 급여를 삭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아가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적 불신을 표출하기도 했다. 혹은 A1 응답자와 같이 국기초 급여가 깎이지 않기 위해 통장에 돈을 넣지 않기도 한다는 의견 또한 있었다. 해당 문제는 FGI 참여자로 하여금 단순한 불만 표출에서부터 제도적 불신, 공식적 노동의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기초 수급자들이 통장에 돈을 안 넣어요. 무조건 빼요.” (A1)

“우리가 몰라서 줬다 뺏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뺏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 연 소득이 2,700만 원이나 2,6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미달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 두 달 받았다고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걸 빼내 간다고 하는 게 거기에 가서 부딪힐 수도 없고, 법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고 했는데, 진짜 그게 주던 게 딱 끊어지니까 십몇만 원씩에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떼더라고요.” (A3)

“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그걸로 너희는 그냥 살아. 그냥 밥만 먹고 살아, 그냥 다른 건 하지마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주면 올렸으면 올리는 대로 줘야지, 올리지도 않으면서 올렸다는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B1)

종합하면, 본 연구의 FGI 대상인 국기초·기초연금의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스스로 한 결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액의 국기초 내 소득 산정 체계를 둘러싼 불만을 공통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이는 문헌경 외(2023)의 FGI 대상이던,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미신청하는 국기초 수급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의견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9월에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한 FGI 참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묻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제2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정부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기초연금 개혁안은 국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토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보건복지부, 2024).

연구진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을 묻기에 앞서, FGI 참여자에게 한 달에 드는 최소 비용을 질문했다. 참여자 대부분은 100만 원은 상회해야 자신이 판단하기에 최소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인해 정기적인 노동소득을 얻지 못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월 필요 비용의 대부분을 공·사적 이전 소득에 의존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즉슨, 정부가 2024년 9월에 밝힌 대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국기초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면 이들의 생활은 그만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저는 지금 남한테 좀 돈을 빌려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이 원인이 뭐냐면 약값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의료급여에서 약값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사정상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걸 먹는 건데, 그것도 그나마 지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생계급여) 75만 원 가지고 생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A5)

“그래도 100만 원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B1)

“한 달 생활을 하려면 100만 원이 조금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요금 따로 우리가 내야 되죠” (B4)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술을 했거든요, 무릎 수술을. 그러면 그거는 의료급여라서 제로(zero)예요. 그런데 그것만 제로야, 내가 병원을 갈 때 못 걷는데 나는 양쪽을 다 수술했어요...(중략) 그러면 갈 때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 차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부대 비용이 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쓰고 있어요.” (B5)

상술한 바와 같이 FGI 참여자들이 경제적 심각함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9월 개혁안은 이들의 실소득을 늘려줄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물었더니, 응답한 모든 참여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자신의 실소득을 늘려줄 방안이면 굳이 2024년 9월의 정부 발표안에 국한하기보다 국기초 생계급여 액수를 늘려주거나 노동소득의 증가에 따른 국기초 급여액 감소를 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실제로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선은 2023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였으나 2024년부터 32%로 상향 조정되었고, 2030년까지 35%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이 발표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 단독으로 국기초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2024년 9월 정부 발표안에 추가된다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하면 좋죠.” (A1)

“내가 볼 때는요. 구청 가서 내가 다 그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생계급여를 받으면 조금 더 올라, 지금 주는 기초연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A5)

“차라리 우리가 알바를 하든지 어디에 가서, 직장도 기초 수급자라고 안 된다고 잘라 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돈을 이렇게 안 올려주려면 직장이라도 가서 돈 벌게끔.” (B2)

“(국기초) 수급자 그냥 놔두고 기초연금을 올린다고 그러면, 올리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B5)

한편, 최근 연금 학계에서는 기초연금액의 증가와 노동공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예: 김윤영 외, 2022; 진성진, 2022).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기초연금액이 증가하면 과연 수급자들이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 변화를 조정할 것인지 파악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재 노동을 하는 몇몇 FGI 참여자에게 한정하여 상술한 문제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수입이 고정적인 노동소득이 아닐뿐더러 설령 노동소득을 얻더라도 그만큼 국기초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적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동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국기초 급여의 차감으로 인해 오히려 탈수급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부작용을 언급했다.

“그 일이라는 게 나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잖아요. 고정적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60만 원 가지고 사는데, 그냥 누구 말대로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건데, 그 와중에 우리도 하루 이틀 하면 그게 한 40만 원 되니까 그 정도 그 40만 원 돈이 나한테 오면은 아무래도 평균보다 풍족하다는 얘기야...(중략) 그러니까 몰래 해야 돼요.” (A2)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중략)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은 일이 있어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1%도 안 돼요.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그만큼 깎여 나가니까...(중략) 일이 있으면 좀 하고, 어디 가서 주면 집도 지켜주면은 돈도 좀 받고 이런 그거는 좀 융통성을 봐 줘야 하는데, 그거 들어왔다고 통장 사본 내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 오히려 실업자를 양성하는 것 같아요.” (A3)

“그걸 하는 게 알바를 조금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일하는 데가 재개발이 돼서 몇 달 같는지 몰라요.” (C3)

종합하면, FGI 참여자들은 정부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정책대안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실소득을 늘려줄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되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다.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선이 30%로 고정됨과 동시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빠르게 확대되던 시기에는 실소득 확대책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기초 수급자의 실제 삶에서는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선이 확대됨과 동시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물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2024년 9월 발표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이번 절에서는 FGI 참여자가 생각하는 향후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했다.

최근에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현재의 목표 지급 범위인 소득 하위 70%를 좀 더 축소함과 동시에 수급액을 더욱 늘려주는 대안이다. 최저소득보장이나 최저연금보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24년)과 2023년에 운영된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적 방향성으로의 개편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이번 FGI 참여자의 실소득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왜냐하면, 최저소득보장 혹은 최저연금 보장으로의 개편은 현재의 기초연금을 공공부조 성격이 강한 제도로 명백히 규정하고, 그 결과 기초연금액을 국기초 내에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FGI 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경제적 삶이 개선되는 관계로 이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몇몇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 대신 국기초 혜택을 증가하는 것이나 혹은 기초연금액의 균등 지급이 있었다.

“이유는 진짜 못 사는 사람 많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최고 대한민국에서 밑바닥이 예요.” (A1)

“저는 100% 찬성합니다.” (A3)

“저도 찬성합니다.” (A4)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있고, 거의 2억, 3억 있는 사람들도 부부 간에 받으니까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부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30 몇만 원이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아놔서 목돈을 만들더라고, 우리는 쓰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주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한 5~6만 원만 깎아서 없는 사람 줬으면 좋겠다.” (B4)

“차등 지급한다는 게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게 좀 그런데 이 국가 재정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은 덜 주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주자 그러잖아요...(중략) 저 양반은 10억이 있는데, 국가도 10만 원 주고, 나는 1억밖에 없는데 100만 원만 준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어떻게 해서 평생 살면서 1억밖에 못 모았냐. 그 주위 시선이 아무래도 나는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래도 신경을 쓰게 돼 있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거를 정부에서 무슨 차등을 뒤서 선별복지를 하려고 그러냐고. 어차피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물론 재정이 부담이 가겠지 정부도. 그렇다고 해서 선별복지를

하느니 그래도 작게나마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복지로 가야지.” (A2)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국기초) 수급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이걸 너무 갈수록 적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기본을 살 수 있게 그냥 밥에다가 물 말아 먹지 말고, 너 가끔 사과도 하나 사 먹어 이 정도로 사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이 수급비를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B1)

“그게(국기초 액수를 늘려주는 것) 현실적인 것 같아요.” (B3)

그 외에도 제2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에서 한 참여자가 제기한 의견 또한 있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래와 같은데, 이를 표면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기초 수급자들의 상황에서 노동소득이나 기초연금액이 바로 국기초 급여의 삭감으로 연결 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2014년 연금개혁 전까지 운영하던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연금(Pension Credit)은 수급자의 탈수급을 장려하기 위해 수급자가 저축할 때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규정(Savings Credit)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향후 이러한 해외사례를 제도 개편 시 참고하여, 상술한 국기초 수급자가 직면한 정책문제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계산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중략) 정확히 그게 통장을 딱 들여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자가 조금 나오니까 거기서 딱 제해버리더라고요. 또 기초 수급을 첫 달에는 뭐냐 십몇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계산을 싹 해보고 9월에는 제하고 5만 원만 나오고, 그 한도액에서 70만 원 한도액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깔끔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깔끔하니까 1원만 더 들어와도 깎아버리더라고요.” (B4)

제4절 소결

이번 FGI와 문현경 외(2023)가 실시한 FGI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관점에서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는 제도적 불신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에 대한 개선은 단순한 규정을 둘러싼 변화를 넘어서,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제도 성격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선 절에서 기술했듯이, 향후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로 바뀔 경우에 기초연금액은 국기초에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국기초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논의 과정은 매우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관점에서 수행한 연구의 성격이 강한 점에서, 향후 ‘줬다 뺐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개선은 기초연금은 물론 국기초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개편 과정에서 정책 대상의 인식이나 선호는 상당히 간과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가 수행한 FGI 결과는 향후 관련 논의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번 장에서 기술한 FGI는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연금·국기초의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FGI의 방법론적 특성으로 인해 FGI 결과는 결코 일반화될 수 없겠으나 서울 외 지역에서 동일 주제로 FGI를 실시한다면 다른 양상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FGI가 필요할 것이다.

VI. 결 론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을 추진하였고, 2025년 현재에는 1인 기준 최대 급여가 약 34만 2천 원 수준(기준연금액 기준)에 이르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수급 비율은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역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초 연금은 노인 가계의 소득구조와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제도의 규모 확대와 함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다수의 노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제도 도입 직후인 2014년부터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활동, 사회활동, 제도 만족도 및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제도 운용과 개선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해왔다.

2025년 조사는 직전 조사와 기본 틀을 유지하되, 수급자의 재산·부채, 사회참여와 노후 준비, 기초연금 제도 이해도와 정보 획득 경로, 상담 및 탈락 경험 등 제도 운용과 직접 연관된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였다. 아울러 5장에서는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동시수급의 배경과 제도 접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가계경제 측면에서, 수급자의 개인화 월 소득은 약 114.7만 원, 월 소비지출은 72.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연금은 평균 31.9만 원으로, 전체 경상소득의 약 27.8%를 차지하는 핵심 소득원이었다.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식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약 52.4%), 그 외에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비중이 뒤를 이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월 평균 흑자액은 약 42.4만 원으로, 이는 평균 기초연금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상당수 수급자가 기초연금액 상당의 저축 여력 또는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노인 1인 기준 월 최소생활비는 약 102만 원, 적정생활비는 약 145.5만 원으로, 적정생활비의 약 70% 수준을 최소생활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 및 부채 보유 측면에서는 수급자의 일부가 차량·부동산·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은 크지 않고, 부채는 평균 수백만 원 수준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재산의 대부분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재산 역시 예·적금, 저축성 보험 등 비교적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자산 측면에서도 충분한 노후 대비를 갖추지 못한 채, 제한된 소득과 기초연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판매·서비스직, 공공질서 유지, 청소업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노인일자리·공공근로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도 약 30% 안팎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체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시간대 중후반, 현재 일자리에서의 월 소득은 약 100만 원 내외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평균 시급은 1만 원 안팎 수준이었다. 사회활동 참여 측면에서는 사교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참여 비율이 뒤를 이르며, 자원봉사·

학습·정치·사회활동 참여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넷째, 노후 준비와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수급자의 약 70%는 65세 이전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약 20%대 중후반은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의 90% 이상이 은퇴 이전에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예·적금·저축성 보험이 주요 수단이었으며, 주식·부동산 운용 등 위험자산을 통한 노후 준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3점대 초반(보통 수준)에 해당하였고,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단독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자녀 및 친구·이웃과의 관계 만족도는 대체로 3.5~3.8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자신의 건강상태와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적·건강상의 제약과 함께 여가·문화활동 기회의 부족이 삶의 만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와 수급액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4.2~4.3점 수준으로, 거의 모든 수급자가 ‘보통 이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점, 병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점, 여가시간 활용 및 친목 모임 증가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에 대해서도 90% 안팎이 ‘보통 이상’의 긍정 응답을 보여,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소비 및 의료 이용 행태에 실질적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족·타인을 대할 때의 당당함 등에 대해서는 긍·부정 응답이 혼재하여, 기초연금이 경제적 즉시효과에는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불안이나 심리적 안정감까지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급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 내외로, ‘보통’과 ‘만족’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이 보통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매우 만족’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현 수준의 급여가

노후생활 유지에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만, 체감상 “충분한 수준”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적정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제도 이해·경험을 보면,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1인당 적정 기준연금액은 ‘월 40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월 50만 원’을 선호하는 응답을 포함하면 전체의 70% 이상이 현재 수준(약 34만 2천 원)보다 높은 급여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실제 생활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재 급여가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일곱째,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를 대상으로 벌인 FGI 조사를 통해서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싼 이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데 주력했다. 해당 문제는 국기초 수급자로 하여금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총액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낳는데, FGI에 참여한 동시 수급자들은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① 신청 단계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② 인지하더라도 동시 수급이 총액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FGI 참여자들은 국기초 내 기초연금액의 소득 산정에 대해서 공통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론적 관점에서의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 수급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혜택이 이들에게 온전히 와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GI 참여자들은 정부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기초연금 개혁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국기초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실소득을 늘려줄 방안이라면 굳이 이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기초 급여액을 늘려주거나 노동소득에 따른 국기초 급여액 감소를 하지 않는 방안과 같은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제도 변화에 따라 수급액 변동이나 수급권 상실 가능성이

있는 집단, 그리고 제도 요건상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미신청 상태로 남아 있는 집단의 정책적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 연계 감액, 재산 평가와 같이 수급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수용 가능한 절차 설계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제도 이해의 불균형, 미신청 집단의 존재, 그리고 일부 제도 항목에 대한 낮은 인지율은, 향후 제도 개편 시 당사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검하고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노인 인구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의 표본 규모와 조사 설계를 중장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본 수와 조사 설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한 명의 표본이 대표해야 하는 모수의 규모가 커지면서 추정치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와 제도 확대 속도를 고려하여 표본 규모 확대, 취약집단(고령·단독가구·농어촌·미신청자 등)에 대한 별도 층화 또는 보정, 조사 항목의 정교화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다 견고한 실증 근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연구원, 2025, 2025년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원자료,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문현경·김아람·홍성운,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프로젝트 보고서,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 자료. 2023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참고자료집 13(국회제출, 2023. 10. 30).
- 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2017,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I), 연구보고서 2017-0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옥·이승희·권형준·한영은·이수은, 2023, 자산을 고려한 노인빈곤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최옥금·문현경·김아람, 202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연구, 프로젝트 2022-05,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최옥금·이은영·홍정민, 2019, 2019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한신실·홍정민, 2020,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한신실·홍정민, 2021,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 록

부 록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설문조사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③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열람,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ID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리서치 조사원 ○○○입니다. 본 조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 중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오직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 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7월 조사주관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기관 : 연구 담당자 : ☎ 02-0000-0000 실사 담당자 : ☎ 02-0000-0000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일련번호 (리스트 ID)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기초연금 최초 수급시점	____년 ____월
	연 령	① 만65~69세 ② 만70~74세 ③ 만75~79세 ④ 만80~84세 ⑤ 만85세 이상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세종		
면접 정보	조사일자	2025년 ____월 ____일 (반드시 기록)		
	시작시간	____시 ____분부터	종료 시간	____시 ____분까지
	총조사시간	____시간 ____분 (반드시 기록)		
	조사원 성명		조사원 번호	
면접 후 기록				
실사연구원	에디팅	검증	코딩	편칭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일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연금공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이용 및 제
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당사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
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급자의 가구원 현황 및 일반 현황, 삶의 만족,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 소득, 지출, 자산·부채, 가구 경제상황, 경제활동, 사회참여활동, 노후 준비, 기초연금 제도 이해 및 인식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동意的 날로부터 2년

※ 귀하는 본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동意的 날로부터 2년

※ 귀하는 본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위탁업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성명, 성별, 연령, 생년, 생월, 휴대전화번호, 지역, 기초연금 수급 여부, 기초연금액, 수급 시작 연월, 국민연금 감액여부	동意的 날로부터 2년

※ 귀하는 본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수집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본인은 이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A4. 현재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③ 연립 및 다세대 주택
 ④ 기타()

문A4-1. 주거용 **전용면적**은 몇 m²입니까?

m² / 평 (※ m² 단위를 모를 경우 '평'으로 응답)

문A4-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의 집(자가 소유) ▶ 문A5로 이동
 ② 전세 ▶ 문A5로 이동
 ③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 문A4-3으로 이동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 문A4-3으로 이동
 ⑤ 기타(무상 주택, 무상 사택 등) ▶ 문A5로 이동

문A4-3. 월세, 사글세를 지출하시는 경우 그 금액은 한 달에 얼마입니까?

만원

문A5. 현재 **어르신 또는 어르신 배우자의 명의의 비사업용 차량**은 몇 대입니까?

※ **비사업용**(사업체 명의로 아닌 어르신 또는 어르신 배우자의 명의) 차량만 해당

- ① 1대 ☐ ▶ 문A5-1로 이동
 ② 2대 이상 ☐
 ③ 미보유 ☐ ▶ 문B1로 이동

문A5-1. 어르신이 **보유하신 차량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신 경우, **차량가액이 가장 높은 비사업용 차량 1대**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소형-경형차(1,600cc 미만) ② 중형차(1,600~2,000cc 미만) ③ 대형차(2,000cc 이상)
 ④ 수소-전기차 ⑤ 화물차 ⑥ 기타

문A5-2. 어르신이 **보유하신 차량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중고가액**은 얼마입니까?

-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2,000만원 ③ 2,000만~3,000만원
 ④ 3,000만원~4,000만원 ⑤ 4,000만원 이상

B 삶의 만족

문B1. 어르신께서는 아래와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해당 없음
1) 자신의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경제 상태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4)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5) 친구,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사회, 여가, 문화활동	①	②	③	④	⑤	
7) 삶 전반	①	②	③	④	⑤	

문B2. 어르신의 향후 삶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상실 등의 "경제 관련 문제"
- ② 질병 및 죽음 등의 "건강 관련 문제"
- ③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사회관계 관련 문제"
- ④ 소외나 고독 등의 "정서 관련 문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전체 어르신에게 최대 342,5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

문C1.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문C2. 기초연금 수령 후 어르신의 드시는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것을 말씀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자녀,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후세대에겐 부담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C3.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친목 모임의 횟수가 증가하는 등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C4. 어르신은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문C5.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 1인당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수준(최대 월 342,510원 수준) ② 월 40만원 수준
③ 월 45만원 수준 ④ 월 50만원 수준

D 소득						
문D1~D10. <u>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u> 에 대한 질문입니다. <u>2025년 5월 기준</u> 으로, 아래 항목별 소득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u>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 수입만을 합해서 응답</u> 해주시되,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또는 손자녀)나 기타 동거인의 수입은 제외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소득 항목	2025년 5월 기준, 소득액					
문D1. 근로소득 ※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 등을 포함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2. 사업·부업소득 ※ 자영업자의 사업이나 부업으로 얻은 소득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3. 재산소득 ※ 주택·토지임대료 등 부동산 소득 등을 포함, 단, 전세보증금은 여기서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4. 금융소득 ※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을 포함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5. 은행·보험 등에 의한 개인연금 ※ 보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일시금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6. 퇴직연금 ※ 일시금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7. 주택연금, 농지연금 ※ 2025년 5월에 받은 금액만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8. 공적이전소득						
문D8-1. 국민연금 ※ 일시금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8-2. 국민연금 외 기타 직역연금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일시금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8-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포함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8-4. 기초연금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8-5. 기타정부지원금 ※ 보훈급여·고용급여·산재보험급여·장애수당·장애연금 등 포함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9. 사적이전소득						
문D9-1. 자녀의 지원 ※ 현물 지원인 경우 환산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9-2. 친인척·지인 등의 지원 ※ 현물 지원인 경우 환산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9-3. 사회단체의 지원 ※ 현물 지원인 경우 환산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D10. 기타소득 ※ 퇴직금, 공적연금/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일체의 일시금, 민간보험회사의 보험금, 중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시가환산),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사금, 복권 당첨금, 주식의 매매차익, 부동산 매매차익, 연말정산환급금,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일회성 선물 및 현금 등의 일시적인 소득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E 지출						
문E1~E14. 어르신 가구의 월 지출 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별 지출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어르신 명의 지출은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의 사용 금액을 합해서 응답해주시요.						
※ 함께 사는 가구원(자녀, 손자녀, 기타 동거인)에게 사용한 금액과 함께 공동 소비한 금액도 포함 바랍니다.						
지출 항목	2025년 5월 기준, 지출액					
문E1. 식비						
문E1-1. 식료품 및 음료 등 식품 구입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2. 외식비 ※ 배달음식 비용, 구내식당 이용 등 포함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3. 담배·주류 구입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2. 주거 및 광열수도비 ※ 월세, 주택 보수 수리 및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 도시가스, 전기료 등 ※ 리모델링, 보수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3. 의료비 ※ 의복, 신발 구입비, 세탁, 수선 등 의료 서비스 비용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4. 교통비 ※ 대중교통비, 차량유지 및 관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 ※ 차량구입비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5. 통신비 ※ 휴대폰,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6. 문화생활비 ※ 스포츠 장비 구입, 영화관·스포츠시설 입장료, 교양오락비, 관광여행 및 숙박료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7. 보건의료비 ※ 병원진료비, 약값, 건강보조식품, 의료용품 구입비 등 ※ 경상적이지 않은 수술, 입원비 등의 지출은 제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8. 간병수발비 ※ 장기요양에 대한 본인부담금, 개인 간병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9.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구입비 ※ 가전제품, 가구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0. 교육비 ※ 만학 등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교육비 포함 ※ 함께 사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용품비 등 포함 가능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1. 사적이전지출 ※ 따로 사는 (손)자녀 또는 형제·부모·친인척에 대한 지원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2. 기타 소비 ※ 기부금, 가구원 잡비, 사회종교단체 지원금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3. 비소비 지출 ※ 대출이자 상환, 각종 세금과 공적보험료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문E14. 경조사비 등 비경상 지출 ※ 부조금, 축의금 등 경조사비, 리모델링 및 주택 개선으로 인한 지출, 차량 구입비, 수술 및 장기입원에 따른 병원비 등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F 자산·부채											
문F1~F8. 어르신 가구의 자산과 부채 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 어르신과 어르신의 배우자 명의의 금액을 합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보유 자산·부채가 사업용인 경우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 항목					2025년 5월 기준 자산액						
문F1. 실물자산											
문F1-1.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만 응답 (문A4의 주거 문항 응답과 일치해야 함)											
문F1-2.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월세 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전세·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응답 (문A4의 주거 문항 응답과 일치해야 함)											
문F1-3. 거주 주택 이외의 부동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용건물(연립, 다세대), 비주거용건물(상가, 빌딩), 토지, 해외부동산 등											
문F1-4. 기타 실물자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주택 구입과 관련된 계약금·중도금 ※ 자영업자 설비와 재고자산, 건설용과 농어업용 장비, 동물과 식물, 회원권, 귀중품, 고가내구재, 차량(오토바이, 보트), 권리금 등 기타 실물자산											
문F2. 금융자산											
문F2-1. 현금·예적금·보험 등 저축 형태의 금융자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현금, 상품권,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익입출식 예금 MMF, CMA, 당좌예금 등 즉시 입출금 가능한 금융자산과 정기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개인연금저축, 정기예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금전신탁, 즉시연금, 펀드 등 포함											
문F2-2. 주식·채권 등 투자 관련 금융자산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직접 투자한 선물, 옵션, 농·수협 출자금 등 ※ 우리사주와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도 포함											
문F2-3. 거주 주택 이외의 임차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빌린 경우 그 보증금 액수											
부채 항목					2025년 5월 기준 부채액						
문F3. 담보대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주택, 부동산, 타 유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문F4. 신용대출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금융기관 및 은행 등 신용대출, 마이니츠 통장											
문F5. 신용카드 관련 대출금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한대출											
문F6. 외상, 할부 미상환 금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외상 및 할부 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문F7. 임대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타인에게 부동산 또는 동산을 빌려 준 경우 그 보증금 액수											
문F8. 기타 부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											

G 가구 경제상황

문G1. 작년(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한 달 지출이 한 달 소득보다 많았던 달**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 **문G1-1로**

② 없었음 ▶ **문G2로**

문G1-1. 당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2순위가 없는 경우, 응답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번호		
① 저축, 예금, 적금, 보험 등의 해약	② 은행 대출이나 마이네스통장	
③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 매각	④ 현금서비스 이용(신용카드 사용 포함)	
⑤ 자동차/내구재/금·은 등의 귀중품 매각	⑥ 친구나 이웃의 도움	
⑦ 자녀나 친척(친지)의 도움	⑧ 사채 이용	
⑨ 부동산 매각 또는 전세나 월세의 규모를 줄임	⑩ 기타	

문G2. 현재 어르신의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주로 마련하는 방식**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2순위가 없는 경우, 응답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번호		
①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활동	② 부동산 관련 수익(임대수익)	
③ 일반 적금 및 예금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⑤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⑥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⑦ 정부 보조금	⑧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보험 포함), 주택연금	
⑨ 은행 대출	⑩ 기타	

문G3. 어르신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노인이 **최소한의 노후생활비**와 **적절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 부부 기준**과 **노인 개인 기준**으로 각각 응답바랍니다.

구분	부부 기준				개인 기준			
(월평균) 최소 생활비				만원				만원
(월평균) 적정 생활비				만원				만원

문G4.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3가지 골라, 월 평균 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2순위 또는 3순위가 없는 경우, 응답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출 항목									
월 평균 지출액			천원			천원			천원
(보기) 지출항목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교육비				④ 주거관련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광열수도비 등)					
⑤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⑥ 문화생활비					
⑦ 의류구입비(옷, 신발 등의 구입비)				⑧ 교통,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사용료 등)					
⑨ 저축				⑩ 경조사비					
⑪ 손자녀 용돈				⑫ 부채상환					
⑬ 기타()									

H 경제활동

문H1. 어르신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문A2-8과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문H1-1로 이동
 ②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문H4로 이동
 ③ 평생 일하지 않았다. ▶ 문H5로 이동

문H1-1. 현재 하시는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기준)

- ① 농림어업 ② 경비·수위·시설관리 ③ 청소업무 ④ 생산작업 ⑤ 가사돌봄
 ⑥ 운전·운송 ⑦ 전문직 ⑧ 행정사무 ⑨ 조리·음식업 ⑩ 택배배달
 ⑪ 현장관리 ⑫ 환경·조경 ⑬ 건설·기계 ⑭ 문화·예술 ⑮ 공공질서유지
 ⑯ 폐휴지수거 ⑰ 판매·서비스직 ⑱ 기타()

문H1-2.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기준)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주(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경영자)
 ⑤ 자영업자(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⑥ 의존계약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⑦ 기타()

문H1-3. 어르신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정부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입니까?

(※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기준)

- ① 예 ② 아니오

문H1-4. 어르신께서는 현재 **주당 평균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기준)

1) 주 평균 근무일 수 일 2) 주 평균 근무시간 시간

문H1-5. 현재 일자리를 통해서 버시는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기준)

월 만원

문H2. 【문H1의 ③번 응답자만】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 문H3으로 이동
④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 문H2-1로 이동

문H2-1. 어르신은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H3으로 이동)

- ① 낮은 급여 수준 ② 건강상태에 비해서 일이 힘들
 ③ 불안정한 일자리 ④ 근무시간
 ⑤ 일(업무)의 내용 ⑥ 대인관계
 ⑦ 기타()

문H3. 【문H1의 ⑥번 응답자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2년 이상 3년 미만
④ 3년 이상 ⑤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음

문H4. 【문H1 질문의 ②응답자만】 어르신께서 **일을 그만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문H5로 이동

- ① 정년 퇴직이나 계약기간 종료 ②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③ 수입이 적어서 ④ 일이 임시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⑤ 적성·지식·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⑥ 근로시간(환경)이 나빠서
⑦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⑧ 가족 간병 때문에
⑨ 창업 또는 가족의 일을 도와주려고 ⑩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⑪ 그냥 쉬고 싶어서 ⑫ 기타()

문H5. 【모든 응답자 대상】 어르신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① (계속) 일하고 싶다 ▶ 문H5-1로 이동
②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문H1로 이동

문H5-1. 어르신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① 예 ▶ 문H5-2로 이동 ② 아니오 ▶ 문H5-3으로 이동

문H5-2. 어르신이 **하고 싶은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② 경비·수위시설관리 ③ 청소업무 ④ 생산작업 ⑤ 가사·돌봄
⑥ 운전·운송 ⑦ 전문직 ⑧ 행정사무 ⑨ 조리·음식업 ⑩ 택배·배달
⑪ 현장관리 ⑫ 환경·조경 ⑬ 건설·기계 ⑭ 문화·예술 ⑮ 공공질서유지
⑯ 폐휴지수거 ⑰ 판매·서비스직 ⑱ 기타()

문H5-3. 어르신이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계비 또는 용돈 마련 ② 건강 유지
③ 사람들과 사귀 수 있어서 ④ 개인적 성취 및 만족
⑤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⑤ 사회적 기여
⑦ 기타()

문H5-4.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당 시간

문H5-5. 어르신께서 하시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하는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만원

J 노후 준비

문J1. 어르신은 65세 이전까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셨습니까?

- ①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한다. ▶ 문J1-1로 이동
 ② 준비했으나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문J1-1로 이동
 ③ 준비하지 않았다(못했다). ▶ 문J2로 이동

문J1-1. 가장 주된 준비 방법부터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응답 후, 문J1의 ① 응답자만 문J3으로 이동 / 문J1의 ② 응답자는 문J2로 이동
 ※ 2순위 없는 경우, 응답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
준비방법		
(보기) 준비방법		
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초연금 제외)	②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③ 부동산 운용	④ 개인연금	
⑤ 주식, 채권 등	⑥ 퇴직금(퇴직연금)	
⑦ 자녀에게 경제적 의지	⑧ 기타(_____)	

문J2. **J1 질문의 ②와 ③ 응답자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J3으로 이동)

- ①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③ 준비를 하다가 다른 곳(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④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⑤ 기타(_____)

문J3. 어르신께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가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스스로
 ② 자녀가 마련
 ③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④ 기타(_____)

K 기초연금 제도 이해 및 인식

문K1. 아래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평소 생각이나 알고 계셨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골라주십시오.

문항	응답	
1) 기초연금금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데,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어르신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2) 기초연금금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께는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3)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수급대상 기준)이나 지급액(물가상승률 반영)은 매년 변경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4) 어르신께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후 수급에 탈락했다라도 제도 변경 등으로 추후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임	① 안다	② 모른다
5)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어르신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의 변화, 또는 가족 관계의 변화(혼인이나 사별, 이혼 등), 신분의 변화(해외로 2달 이상 여행 또는 체류 등)가 있을 때 사·군·구·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를 해야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러한 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6) 기초연금을 수급 받는 어르신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 감면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러한 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7) 국민연금공단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문K2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경로로 아셨습니까? 주로 알게 된 경로 2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2순위 없는 경우, 응답 칸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구분	1순위	2순위
표의		

- ①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② 자택으로 발송된 안내문
③ 주선민터(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④ 주변인(가족, 친구 등)
⑤ 텔레비전 또는 신문(우로신문, 인터넷신문 포함) ⑤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⑦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포스터 ⑧ 기타()

문K3.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까?

- | | |
|------------------------------|----------------------------------|
| ① 국민연금공단 전화 또는 방문 | ② 자택으로 발송된 안내문 |
| ③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전화 또는 방문 | ④ 주변인(가족, 친구 등) |
| ⑤ 텔레비전 또는 신문(무료신문, 인터넷신문 포함) | ⑥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
| ⑦ 현수막,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 ⑧ 모임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노래교실 등)을 통해 |
| ⑨ 기타(_____) | |

문K4. 어르신께서는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직접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K4-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K5로 이동

문K4-1. 어르신께서는 상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K4-2. 기초연금 상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하셨습니까?

- | | |
|-------------------------------|--------------|
| ① 직접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를 각각 방문하여 상담 | ▶ 문K4-3으로 이동 |
| ②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 ▶ 문K4-4로 이동 |
| ③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 ▶ 문K4-4로 이동 |
| ④ 전화로 문의하여 상담 | ▶ 문K5로 이동 |

문K4-3.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하신 경우 방문하신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공단 지사를 먼저 방문한 후 이후 주민센터 방문
②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한 후 이후 공단지사 방문

문K4-4. 직접 방문은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 | | |
|---------|-------------|
| ① 1회 | ▶ 문K5로 이동 |
| ② 2회 | ▶ 문K4-5로 이동 |
| ③ 3회 이상 | ▶ 문K4-5로 이동 |

문K4-5. 2회 이상 방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재상담을 위해서
②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③ 기관별로 상담이 상이하여
④ 공단(주민센터)에서만 상담하는 줄 알고
⑤ 기타(_____)

문K5. 어르신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 본인이 선정될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 ① 예 ▶ 문K6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K5-1로 이동

문K5-1.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될 이유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 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총사 활동
 ②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③ 국민연금 수급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⑤ 기타()

문K6. 기초연금 탈락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K6-1 질문으로 이동 ② 없다 ▶ 설문 종료

문K6-1. 기초연금 탈락 후 몇 번 재신청 하셨습니까?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이상

문K6-2.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공단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② 소득·재산 감소, 또는 혼인 관계 변화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③ 홍보(TV, 현수막 등) 선정기준액 상향을 알게 되어
 ④ 탈락 당시 재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서

★ 오랫동안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 록 2: 초점집단 면접조사 질문지

2025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좌담회 Guide Line

■ 좌담회 그룹 구성

※ 특성 : 국기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구분	1그룹	2그룹
연령	65~74	65~74
성별	남성	여성
특성	기초연금과 국기초 동시수급	기초연금과 국기초 동시수급
일정	10월 31일	10월 31일

□ Guide Line

Warning-up

1. 모임의 목적 소개

2. 진행 방법 설명

▶ 토의되는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본인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느낌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토의 진행 중에는 잠시 휴대폰을 꺼 주십시오.

▶ 평소 친구나 주위 분들과 대화하시는 느낌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말씀 중에 진행자가 끊을 수도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자 및 참석자 소개 - 이름, 연령, 현재 살고 있는 곳 등 간략히

1. 국기초 및 기초연금 관련 기본 사항

※ 1 기본 사항 파트(1-1 ~ 1-6)는 사전 설문지를 제공하여 좌담회 시작전에 작성하도록 함

1-1. 선생님들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 ①단독 노인, ②부부 노인, ③단독 노인+가구원, ④부부 노인+가구원

1-2. 현재 국기초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신 게 맞는지요?

1-3. 현재 국기초 급여 유형(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무엇을 받고 계시나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수 선택 가능)

1-4. 언제부터 국기초 급여를 받고 계시는지요?

1-5.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는지요?

1-6.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① 65세 이상 노인 중 70% 대상 최대 약 34만 원을 매월 지급,

② 국기초 수급자 선정시 고려하는 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됨 등

II. 기초연금 관련 (종류)

2-1. 처음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어떤 경로로 받으셨는지요? (예: 우편, 전화, 문자 등)

2-2. 소위 '뺏다 뺏다' 기초연금' 문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2-1. (인지자 : 들어본 적 있다)

그런데도(뺏다 뺏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기초를 동시에 받으시는(혹은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2-2. (미인지자 : 모르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後)**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2-3. 기초연금과 국기초를 동시에 받으시는 것이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요? 혹은 타인의 조언이나 권유를 듣고 결정하신 건가요?

Ⅲ. 기초연금 관련 (각론)

3-1. 기초연금+국기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최소로 필요한 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부족한 비용의 몇 프로(%) 정도를 기초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바라시나요?

3-2. 정부는 2024년 9월에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초연금액 (올해 기준, 약 34만 원)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 즉, 현재보다 총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남

3-3. 기초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드린다면, 이상적으로 몇 퍼센트를 선호하시나요?

3-3-1. 여러 가지 이유로 100%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로 몇 퍼센트(%) 정도를 받아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
는지요?

3-4. 기초연금을 좀 더 드린다면, 현재보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실 것 같으신가요?

IV. 향후 발전 방향

4.1. 최근에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욱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1-1.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4.2. 오늘 말씀하신 것 외에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저자 약력

- 문 현 경

University of York 사회정책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 아 랍

현 국민연금연구원 전문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연구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nstitute.nps.or.kr>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연차보고서 2025-03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2025년 12월 인쇄

2025년 12월 발행

발행인 : 김 성 주

편집인 : 한 정 립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만성동)

TEL : 063-713-6776 / FAX : 063-900-3250

ISBN 978-89-6338-768-0 (93330)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ISBN 978-89-6338-768-0 (93330)